

2026 스웨덴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8
가. 정부 현황	08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9
3. 주요 이슈 Pick	12
가. (경제/산업) 에너지 & 녹색 전환	12
나. (경제/산업) 산업 경쟁력 확보 목적,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정책 추진	13
다. (경제/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14
라. (외교/안보) 방위비 증가, 방산 분야 대규모 투자 추진	15
마. (사회/문화) 심화된 소득 격차로 인한 소비 양극화 현상	16
바.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른 건강 관리·돌봄 시장 급성장	17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0
가. 시장 특징	20
나. 무역	23
다. 산업	29
라. 투자	31
2. 유망 산업	36
가. 에너지(원전 포함)·전력기자재	36
나. 화장품	39
다. 식품	42
3. 협력 기회	45
가. 통상·G2G	45
나. 프로젝트	46
다. 공급망(자원개발)	49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52
2. 진출전략	54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65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69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72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73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8
3. 주요 이슈 Pick	12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경제 전망

- 2026년 2.2% 상승
 - 내수 회복, 수출입 증가로 경기 회복 건인
 -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낮은 공공부채 비율, 견고한 제도적 틀, 안정된 금융시장, 높은 R&D 지출로 경기 탄력 전망
 - 중장기적으로는 고임금, 높은 청년 실업률이 성장 저해

□ 호재 요인

- 불확실성으로 지연됐던 경기가 소폭 회복되면서 2.2% 성장
 -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책으로 민간 소비와 외부 수요 회복
 - 공공 소비(1.2%), 민간 소비(2.0%), 고정 투자(3.9%), 수출(3.3%), 수입(3.5%) 증가
 - 내수와 제조업 생산은 각각 2.3%, 8.8%씩 증가
 - 인플레이션 둔화, 임금 인상, 통화정책 완화로 민간 소비가 반등하면서 성장

□ 부재 요인

- 높은 가계 부채율로 소비회복 장기화, 고임금, 높은 청년 실업률로 성장 저해
 - '25.8월 기준, 민간 가계 부채율이 실질 가처분소득의 200%로 당분간 소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 EU-미국이 상호 관세율을 15%로 타결('25.7.27)함에 따라 당초 위협된 최대 30%보다는 낮아졌으나 기업 부담 여전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10.05	10.12	10.19	10.25	10.5	10.5	10.7	10.7
명목 GDP	십억 달러	535.2	544.2	631.7	574.9	579.2	604.6	676.6	707.7
1인당 명목 GDP	달러	55,371	52,566	60,642	54,821	54,895	56,996	63,489	66,136
실질 성장률	%	1.6	-3.8	4.9	2.9	-0.2	1.0	1.8	2.2
실업률	%	6.4	8.5	8.9	7.5	7.7	8.4	8.5	8.2
소비자물가 상승률	%	1.9	0.5	2.4	7.7	6.0	1.9	2.3	1.9
재정수지(GDP대비)	%	0.6	-3.2	-0.2	1.0	-0.8	-1.5	-1.4	-1.1
총 수출	백만 달러	160,500	172,700	213,700	221,200	222,900	222,000	260,900	300,000
(對韓 수출)	백만 달러	1,744	921	2,047	1,417	2,099	1,942	n/a	n/a
총 수입	백만 달러	158,700	146,800	183,200	197,600	189,900	184,600	240,100	259,600
(對韓 수입)	백만 달러	1,071	1,723	1,520	1,943	1,387	1,366	n/a	n/a
무역수지	십억 달러	1.8	25.9	30.5	23.6	33.0	37.5	20.8	40.4
경상수지	십억 달러	24.2	24.4	19.1	25.0	25.0	30.4	30.2	n/a
환율(연평균)	현자국/US\$	8.65	9.34	8.87	10.45	10.61	10.57	9.82	9.76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62	226	633	658	404	356	248	222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87	185	580	540	180	267	122	110

주: 2025년은 추정치, 2026년은 전망치
 자료: E.I.U.(‘25.8.29.)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내수 회복 및 수출입 증가로 경기 회복 견인
 - 공공 소비(1.2%), 민간 소비(2.0%), 고정 투자(3.9%), 수출(3.3%), 수입(3.5%) 증가
- 스웨덴 정부의 낮은 공공부채 비율, 견고한 제도적 틀, 안정된 금융시장, 높은 R&D 지출, 경기부양책으로 경기 탄력 전망
 - * 스웨덴의 공공부채 비율은 GDP의 35.0%로 선진국 중 낮은 수준
- 중장기적으로는 고임금과 높은 청년 실업률이 성장 저해, 미국과의 상호 관세 15%로 대미 수출기업 애로 여전
- (소비) 내수 2.3% 증가 전망, 높은 가계 부채율로 소비 회복에 장기간 소요
 - '25년 8월 기준, 민간 가계 부채율이 실질 가처분소득의 200%으로 당분간 소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산업생산)

- 제조업 생산 8.8% 증가 전망이나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 부담 여전
 - '25년 7월 27일 EU와 미국이 상호 관세율을 15%로 타결함에 따라 당초 위협되었던 최대 30%보다는 낮으나 기업 부담 여전
- 수출기업이 생산 계획 조정에 신중하고,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검토 중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

• (대외교역)

- (수출) 2024년 1,9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0.8% 감소, 2025(1~6월) 수출은 94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1% 감소
- (수입) 2024년 1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감소, 2025(1~6월) 수입은 868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7% 감소
- 불확실성 증가로 수출기업 부담 여전
- 미국은 스웨덴의 상위 3위 교역국
 - 스웨덴의 대미 수출 품목은 차량, 기계류, 제약, 철강 등이며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의 22%, 철강·알루미늄은 총 수출의 3.5% 차지하고 있어 가격경쟁력 하락 또는 수출 감소 등 관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투자유입) 對스웨덴 투자 규모, 주요 투자국, 최근 동향

- (투자규모) 2022년에 최대 투자 규모(약 52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3년과 2024년 다시 감소, 2025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약 135억 USD/1,263억 SEK)
 - * UNTAD, 스웨덴통계청(SCB)
- (주요투자국) 對스웨덴 주요 투자국은 룩셈부르크,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 (스웨덴 FDI법) 스웨덴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광범위하게 환영하는 편이나 최근 스웨덴 FDI법 발효를 통해 외국 기업의 對스웨덴 투자 시 스웨덴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통제
 - FDI법은 '외국인 투자심사에 관한 법률(2023 : 560)'로 스웨덴 안보와 공공질서, 공공안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방지를 위해 2023년 봄에 채택, 2023.12월 발효
 - 스웨덴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가는 투자 수행 전 스웨덴 전략투자감독청(ISP)에 보고 의무가 있으며, ISP는 스웨덴 안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금지 가능

• (투자진출) 스웨덴 주요 대외 투자 진출 규모, 주요 진출국 및 동향

- (투자규모)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3년간('22~'24년) 지속 감소를 보이나 '25년 상반기 소폭 상승
- '25년 상반기 해외투자는 총 1089억 4,300만 SEK(약 116.8억 USD)로 전년 동기의 749억 1,700만 SEK(약 80.3억 USD)에 비해 45% 상승

- (투자진출국) '25년 2분기 주요 투자 진출국은 영국(102억 SEK), 네덜란드(78억 SEK), 핀란드(75억 SEK), 독일(61억 SEK), 라트비아(50억 SEK), 아시아 주요 투자 대상국은 중국(30억 SEK), 한국(14억 SEK) 등
- (투자동향) 산업별 '24년도 총 누적 투자 분야는 정보통신, 석유·화학, 운송장비, 도소매업, 금융중개, 보험·연금 기금 서비스 순

* 스웨덴 통계청('25년 9월 기준)

2. 정치(정책) 환경

가. 정부 현황

□ 보수·극우 연합 정부 정권 유지

- 2022년 9월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극우 연합 정부가 정권 유지
 - 보수·극우 연합(보수당+기독교민주당+자유당+스웨덴민주당)이 좌파 연합(사민당, 좌파당, 환경당, 중도당)보다 3석 앞선 176석 확보로 내각을 구성, 보수당의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당수가 수상으로 취임
 - 차기 총선은 2026년 9월 13일(일) 예정

□ 정부 공약

- 생산성 및 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 교육 진흥, 범죄와의 전쟁, 난민 정책 강화 및 국방 강화
 - 대내적으로는 소득세 감세, 식품 부가세 인하,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린 전환 가속, 안보 강화, 경쟁력 강화, 혁신 역량 향상
 - 대외적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 옹호, 경제적·사회적 정의 구현, 국제 자유무역 촉구, NATO 협력 증대
- 경기 진작-2026년 총선 겨냥, 대규모 예산(800억 SEK/약 80억 달러) 투입
 - 경기부양책
 - 소기업 감세, 청년 고용 인센티브, 행정 규제 완화
 - 가계 지원을 위해 식품 부가가치세(VAT)를 12%에서 6%로 인하('26년 4월~'27년 12월까지 한시적 시행)
 - 산업정책
 - 스웨덴 정부는 기술 리더십, 회복 탄력성, 산업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 및 기본 조건 마련에 초점을 맞춰 산업 전략 추진
 -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도약(The Industrial Leap)' 프로젝트 진행-탄소 배출 감소, 탄소 포집 기술(BECCS) 개발, 넷 제로 전환 지원 이니셔티브에 자금 지원
- 치안·법무 정책-AI 얼굴 인식 도입, 형사 책임 연령 인하
 - 심각 범죄(인신매매, 살인 등) 대응을 위해 경찰이 AI 기반 얼굴 인식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제출, 2026년 초부터 시행 예정
 - 중범죄의 경우, 형사 책임 연령을 현재 15세에서 13세로 인하
- 대규모 인프라 투자, 신재생에너지 확대, 연구 투자, 주택 공급 확대
 - 2026~2037년까지 12개년간 국가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 도로·철도·디지털 인프라·스마트 시티 등 전방위적 인프라 투자 계획

- 에너지 정책 전환
 -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재생 및 연구개발(R&D) 확대, 허가 절차 단축을 포함한 종합적 에너지정책 전환 추진
- 연구·혁신 투자 대폭 확대
 - 2028년까지 R&D에 총 400억 SEK(약 40억 달러) 투입, 역사상 최대 규모
 - 학생 기숙사 디자인 규제 완화, 소형 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 면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추진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주요 정책

- 에너지 정책
 - 2022년 9월 정권 교체를 계기로 탈원전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방향 전환
 - 204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100% 無 화석연료 에너지’로 변경
- 원전 정책 전환
 - 제조업이 발달한 스웨덴은 전력 사용이 높은 편이며, 에너지 안보 고조, AI 산업 확대로 앞으로 전력 소비 증가 전망
 - 2035년까지 2,500MW, 2045년까지 최대 10,000MW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도입 추진 중(2035년까지 최소 2기, 2045년까지 총 10기)
 - Vattenfall사(스웨덴 국영 전력업체로 원전 운영), 2035년까지 링할스(Ringhals) 원자력발전소 부근 베레할브왜(Väröhalvö) 지역에 대형 원자로 2기에 맞먹는 출력을 갖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 ’24년 9월 SMR 및 대형 원자로 입찰 동시 진행
 - SMR 우선협상대상자로 Rolls-Royce SMR, GE Hitachi Nuclear Energy 선정, 대형 원자로 우선협상대상자는 Westinghouse(미국), EDF(프랑스)
 - Vattenfall사, 스웨덴에서 40년 만에 처음 건설할 원전은 SMR로 결정 발표(’25.8.)
 - 이에 따라 SMR 우선협상대상자인 GE Hitachi Nuclear Energy와 Rolls-Royce SMR사 간 경쟁 심화, ’26년 말 최종 선정자 발표 예정
 - 현재 우리 기업으로는 삼성C&T가 GE Hitachi와 협력 중
 - 원자력 재정지원 법안 의회 통과(’25.5.)
 - 해당 법안 발효로 정부가 원전 건설업체에 대출 보증, 전력 가격 보장(CfD, Contract for Difference), 원전 건설업체는 2025년 8월부터 정부에 재정지원 신청 가능

- 인프라 투자

- 국가 교통인프라 계획(National Transport Infrastructure)
 - 2026~2037년 총 1조 1,710억 SEK(약 1,200억 달러) 투입
 - 기존 도로·철도망 유지보수, 신규 인프라 개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진행
 - 주요 도시 간 연결을 강화하는 고속철도 프로젝트 논의 중
 - 기존 노선 확장 : Hassleholm-Lund, Boras-Goteborg 복선화
 - 신호시스템 현대화 : 유럽 철도교통 관리시스템(ERTMS) 도입

* EU의 '100개 기후 중립 및 스마트시티 미션' 참가 : 2030년까지 스톡홀름, 말뫼, 룬드 등 7개 도시의 기후 중립 도시 목표

□ 규제 현황

- 에코디자인 규정

- ESPPR(에코디자인 규정)은 에너지 효율, 내구성, 재활용성 등을 포함한 제품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한 규정으로 EU 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설계 필요
- ESPPR은 현재 TV, 세탁기 등 일부 제품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나 아직 많은 품목의 세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애로→ 제품별 세부 규정의 조속한 확정으로 명확한 로드맵 제시 필요
-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 확보 필요
 -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 표준이 EU와 다른 국가(예 : 한국)에서 상이하게 발전할 경우, 기업들은 이중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
 - EU가 ISO 등 국제 표준화 기구와 협력해 ESPPR 관련 표준을 수립해 다른 국가의 관련 규제와 호환될 수 있도록 요구 필요

- 디지털 제품 여권 규정

- 디지털 제품 여권(DDP) 규정은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등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에 대한 기술적·비용적 부담
- DPP는 제품의 민감한 생산 정보를 EU 데이터 스페이스에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데이터 주권과 기술적·영업적 기밀의 침해 가능성이 높은 편
- 따라서 데이터 주체 기업의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안 조치 마련 필요

- 배터리 규정

- EUBR(배터리 규정)은 배터리 생산 시 원자재의 투명성, 재활용성, 탄소 발자국 등을 요구하는 규제. 스웨덴에 원자재 생산공장을 설립한 D사도 직접적 영향(복잡한 서류 작업과 정보 공개 의무 등)

- 스웨덴 진출 D사의 경우, 동사에서 생산한 원자재(배터리 음극재인 CNT와 슬러리 복합재료) 전량을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 Northvolt에 공급했는데, '25년 3월 동사 협력사인 Northvolt가 파산하면서 배터리 규정 준수에 따른 업무 부담 외 협력사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동사 생산 라인도 중단
- '25년 8월 미 Lyten사가 Northvolt사를 인수했으나 공장 재가동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추후 공장 재가동 시,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비율 조정 및 유연성 부여 요구 필요

3. 주요 이슈 Pick

가. (경제/산업) 에너지 & 녹색 전환

□ 개요

- (배경 및 내용)
 - 에너지 & 녹색 전환
 - ▶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재생 및 연구개발(R&D) 확대, 허가 절차 단축 등을 포함한 종합적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
- (관련 분야·산업)
 - ① 풍력 발전
 - ▶ 2026년까지 19.5GW, 2030년까지 최대 30GW로 확장 전망
 - ▶ 2023년 말 기준 풍력발전 용량은 16.4GW로,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이며 전력의 약 20.9%를 담당
 - ②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
 - 스웨덴의 전력 소비는 2045년까지 60% 이상 증가 예상
 - ▶ 자동차, 철강, 방산, 제약 등 제조업이 발달한 스웨덴 산업 특성상 전력 사용이 높은 편이고, 러-우 사태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노력 경주
 - ▶ 특히, 최근 글로벌 테크기업(Microsoft, NVIDIA, Amazon 등)*의 스웨덴 내 데이터센터 확충 및 4차산업 분야인 AI 산업의 확대로 전력 수요 급증
 - * Microsoft : 스웨덴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에 32억 달러 투자 발표('24년 6월)
 - * Sandviken, Gavle, Staffanstorps 소재 데이터 센터 확충-확장된 데이터센터에 2만 개의 최첨단 CPU 배포 계획
 - * NVIDIA와 스웨덴 기업 컨소시엄-AstraZeneca, Ericsson, Saab, SEB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네트워킹,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AI 팩토리 구축
 - * Amazon : 스웨덴 멜라르달렌에 데이터센터 AWS EU(Stockholm) 리전 개설(AI/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전력망 중 하나인 스웨덴 전력망 시스템은 향후 20년 동안 증가할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대대적 확장 필요
 - ▶ 2035년까지 현 150테라와트시(TWh)에서 235TWh 규모의 전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산시설의 절반가량인 75TWh에 해당하는 설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시설로 대체 필요
 - ▶ 또한 150마일의 신규 전력선, 250개의 신규 송전선, 30개의 신규 변전소의 건설 및 기존 변전소 100개소의 업그레이드 필요
 - 주요 전략 및 계획
 - ▶ 정책명 : 전력화 국가 전략(National Electrification Strategy)/전력망 개발 계획(Grid Development Plan)

- 국가 전력 시스템의 강화, 전력망 확장,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초점
- 지원 규모 : 2024~2033년까지 10년간 대규모 송전망 확장 및 갱신 프로젝트에 440억 SEK(약 45억 달러) 규모 투자, 2045년까지 스웨덴 전력망에 필요한 총 투자액은 약 9,450억 SEK(약 950억 달러) 추산
- 비전 : (장기) 2015~2030년(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국가 실행 계획)
- (중기) 2024~2033년(스웨덴 전력청의 최신 전력망 개발 계획)
- (전력화 전략 이행) 2022~2024년(전력화위원회 활동)

③ 원자력발전

- 2035년까지 2,500MW, 2045년까지 최대 10,000MW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도입 추진 중(2035년까지 최소 2기, 2045년까지 총 10기)
- 우리 기업에의 영향(기회요인, 또는 진출 시 리스크 고려 필요)
 - 스웨덴의 에너지&녹색전환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 풍력발전, 전력망 현대화, 스마트 그리드, ESS,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전력 기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 기회 제공
 - 성공적인 스웨덴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 현지 파트너십 구축, 기술력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 필요

나. (경제/산업) 산업 경쟁력 확보 목적,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정책 추진

□ 개요

- (배경 및 내용)
 - 2026~2037년 국가 인프라 투자 계획
- (관련 분야·산업)
 - 도로·철도·디지털 인프라·스마트 시티 등 전방위적 인프라 투자
 - 스톡홀름 순환도로인 바이패스 건설과 같은 장거리 터널 및 교량 프로젝트와 고속철도 확충 사업
 - 국가 AI 전략 일환으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 및 인공지능(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등 주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마트 시티 정책 적극 추진
- 우리 기업에의 영향(기회요인, 또는 진출 시 리스크 고려 필요)
 - 건설 프로젝트는 한국 건설기업에 참여 기회가 될 수 있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은 서버, 네트워크 장비, AI 솔루션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IT 기업들에 큰 기회 제공 가능
 - 다만, 스웨덴은 기술 및 품질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현지 시장은 이미 주요 유럽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 특히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필수
 - 인프라 프로젝트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환경 규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이 장기간 소요. 따라서 현지 법규 및 규제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사업 지연이나 실패 리스크가 큰 편

- 철저한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중요

다. (경제/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 개요

- (배경 및 내용)
 - “스웨덴을 세계에서 디지털화 가능성을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로 포지셔닝 한다”는 목표로 ICT 부문의 연구개발 지원, 관련 법규 제정 및 전략 수립을 통해 디지털 전환 추진
 - ▶ 스웨덴 혁신청(Vinnova)의 ‘고급 디지털화 프로그램’에 총 290억 스웨덴 크로나(약 30.8억 달러) 지원-38개 프로젝트에 최대 50% 예산 지원
- 인더스트리 4.0 및 Production 2030을 통한 제조 분야의 디지털화 추진
 -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ICT for Everyone’으로 대변되는 광대역통신망정책이 있으며,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스마트 인더스트리 정책과 Production 2030 정책 운용
 - 스웨덴이 스마트 인더스트리 및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한 배경에는 △산업 경쟁력 제고 외에도 △지속가능한 생산 및 기후 목표 달성(그린 전환), △지역 균형 발전 및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표가 있었음
 - 스웨덴 제조업 디지털화 기업 성공 사례
 - ▶ AstraZeneca(제약/바이오)의 스톡홀름 쉐데르텔에 공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등대공장(Lighthouse) 네트워크에 선정된 스마트 팩토리로 AI 및 ML(머신 러닝)을 도입, 50가지 이상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솔루션 활용-노동생산성 56% 증가, 신제품 개발 리드 타임 67% 단축
 - 스웨덴 중심의 AI 팩토리 구축을 위해 Ericsson, AstraZeneca, Saab, SEB가 대규모 컨소시엄 결성해 스웨덴 최대의 엔터프라이즈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국가 AI 혁신 가속화(투자 규모는 미발표)
 - ▶ Ericsson(통신장비/AI) : 데이터 과학 전문성을 활용한 네트워크 성능 최적화
 - ▶ AstraZeneca(제약/바이오) : AI를 활용한 차세대 약물 발견 및 개발 가속화
 - ▶ Saab(방산) : 첨단 방산기술 개발에 AI 적용
 - ▶ SEB(금융) : AI 기반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
- (관련 분야·산업)
 - 스웨덴 혁신청(Vinnova), 스웨덴 지역·경제개발청(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을 통해 제조업의 디지털화 및 ICT 융복합(AI, SW+빅데이터, IoT), 소재 경량화 등 혁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5G, 6G, 핀테크, AI, 로봇 분야에도 투자 확대

- 우리 기업에의 영향(기회요인, 또는 진출 시 리스크 고려 필요)
 - 스웨덴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산업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물류·헬스케어 분야의 자동화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솔루션 수요가 높은 편
 - 한국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나 지능형 로봇 솔루션으로 시장 진출 모색
 - 스웨덴은 세계적인 ICT 기업들을 배출한 기술 강국으로 시장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하므로 한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M&A를 통한 시장 접근이 효과적
 - 스웨덴은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비롯한 데이터 관련 규제가 엄격하므로 사업 계획 수립 시 현지의 법적, 경제적 여건 철저히 분석 필요

라. (외교/안보) 방위비 증가, 방산 분야 대규모 투자 추진

□ 개요

- (배경 및 내용)
 - 방위비 3.5% 목표, 대출 통한 확대 재정, 무기 확보,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 스웨덴의 국방비는 NATO에 정식 가입한 2024년 기준 GDP의 2.0% 수준
 - 2025년 GDP의 2.4% 기록했고, 2026년에는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GDP의 2.8% 달성 목표
 - 2026년 총 국방 예산은 1,750 스웨덴 크로나(약 186억 달러)로 2025년 대비 226억 스웨덴 크로나 증액(1US\$=9.4 SEK 기준 환산)
 - 증액된 예산은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육·해·공군 무기체계와 장비, 시설 확충에 사용
 - 초당적 국방 재무 합의
 - 2025년 6월 주요 정당들과 초당적 합의를 통해 2026~2034년 기간 동안 국방 및 민방위 지출을 위해 최대 3,000억 스웨덴 크로나(약 300억 달러)까지 대출을 통한 일시적 재정 허용
 - 무기 및 물자 확보
 - 2025~2028년간 스웨덴 국방 강화 및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무기 구매에 약 250억 스웨덴 크로나(약 26.5억 달러) 배정
 -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응 패키지
 - 해상·사이버·심리전 대응을 위해 총 9,6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021만 달러) 규모의 예산 배정하고 해안경비대, 심리방여청, 민방위청 등에 분산 지원
- (관련 분야·산업)
 - 첨단 무기체계와 지휘통제 통신정보(C4ISR) 시스템, 사이버 방위 등 미래형 전력 강화 부문

- 우리 기업에의 영향(기회요인, 또는 진출 시 리스크 고려 필요)
 - 스웨덴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NATO 표준에 부합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하는 상황
 - 한국은 K-방산으로 불리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웨덴의 기술 공백을 메우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 추진 가능
 - 특히 AI, 드론, 우주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방산 분야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개발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
 - 스웨덴은 SAAB와 같은 자체 방산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이미 NATO와의 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자국 내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 따라서 한국 기업은 기술력 우위뿐만 아니라 현지화 전략과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경쟁력 확보 필요

마. (사회/문화) 심화된 소득 격차로 인한 소비 양극화 현상

□ 개요

- (배경 및 내용)
 - 글로벌 경쟁 심화로 제조업 부문의 해외 이전과 자동화로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임금은 정체
 - 누진세 완화 등 스웨덴의 세제 정책 변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 약화
 - 대규모 이민자 유입으로 저숙련 노동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금 상승 억제
 - 이러한 소득 격차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져, 고소득층은 고급화와 프리미엄 소비를 추구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가성비 및 실용적 소비에 집중하는 경향
- (관련 분야·산업)
 - 경기 침체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때 12%까지 올라갔던 초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재 시장에서 디스카운트 마켓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고, 일반 매장의 PB제품 판매 증가
 - 일반 소비재의 경우 가격비교 사이트(Price runner 등) 확인 후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행태 증가
- 우리 기업에의 영향(기회요인, 또는 진출 시 리스크 고려 필요)
 - 자동차, 가전 등 일부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소비자 유치 캠페인으로 시장 활성화 모색
 - 실용적 소비에 집중하는 소비자를 겨냥해서는 가성비 높은 PB 제품으로 진출

바.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른 건강 관리·돌봄 시장 급성장

□ 개요

- (배경 및 내용)
 - 스웨덴은 EU 국 중에서도 8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
 - ▶ 200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3%, 2024년 21.0%를 넘었고, 급격한 고령화는 건강 관리 및 돌봄 시스템에 지속적인 혁신 요구
 - 스웨덴의 건강 관리 및 돌봄 시스템은 ‘에델 개혁(Ädel Reform)’ 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Lanstring)와 기초자치단체(Kommun)가 역할 분담을 하는 구조로 운영
 - ▶ 광역지방자치단체(Lanstring)는 주로 질병 치료 및 병원 의료서비스 등 일반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 담당
 - ▶ 기초자치단체(Kommun)는 노인 요양원, 그룹 홈, 주택 내 돌봄 서비스 등 ‘특별 주거’ 방식으로 통합된 돌봄 서비스 제공
 - 이외 의료, 요양, 방문 간호를 통합해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돌봄 서비스와 재가(在家) 돌봄 강화
 - 스웨덴의 돌봄 시장은 주로 공공 주도로 운영되며, 서비스는 공적 자금으로 지원
 - 원격 의료(Telemedicine)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건강 관리 실행
 - ▶ 공공 의료 시스템과 연계된 민간 디지털 의료 제공업체들이 원격 의료 성장 주도- Kry, Min Doktor, Doktor.se, Doktor24, Mindler 등
 - ▶ 이외 외딴 지역 접근성 향상 모델로 가상 커뮤니티 룸(Virtual Community Rooms), 재택 입원 서비스 모델(카롤린스카 병원과 연계/디지털-물리적 재택 입원 치료) 구현
- (관련 분야·산업)
 -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원격 의료 솔루션, 건강 모니터링 기기
 - ▶ 스웨덴은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에 적극적
 - ▶ 노인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 플랫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및 IoT 솔루션 등
 - 데이터 분석 기반 헬스케어
 - ▶ 개인 건강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 스마트 홈 케어(Smart Home Care) 및 로봇 보조 시스템
 - ▶ 일상 생활 보조, 약 복용 알림, 낙상 감지 등 노인 친화적인 자동화 시스템 및 보조 로봇
 - 재활 및 보조기구(Rehabilitation & Assistive Devices)
 - ▶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우리 기업에의 영향(기회 요인, 또는 진출 시 리스크 고려 필요)

- 기회 요인

- 한국은 ICT 및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웨덴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스마트 홈케어 시장 진출 가능
 -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등을 개발하여 시장 니즈 충족

- 진출 시 리스크 고려 필요 사항

- 스웨덴은 보건 및 의료 분야에 엄격한 규제와 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현지 법규 및 규제 환경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스웨덴의 문화적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단순 기술 수출을 넘어 현지 파트너십 구축, 서비스 현지화 등을 통해 시장에 안착하는 노력 중요
 - 차별화된 기술력과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통해 경쟁 우위 확보 필요
 - 스웨덴의 돌봄 시장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력과 기술의 결합이 필수적

A stylized world map composed of small white dots on a dark blue background, spanning the entire page. The map is centered and shows the outlines of the continents.

Ⅱ.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0
2. 유망 산업	36
3. 협력 기회	45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제조업 강국으로 수출주도형 산업구조 발달
- 가계소비 성향은 실용성과 품질 중시, 수입품에 대한 개방성
- 북유럽 진출 교두보 역할

가. 시장 특징

□ 주요 특징

- 일찍부터 수출주도형 산업구조 발달, 글로벌 기업 육성 및 산업 발전
 - 볼보 등 세계 우수 자동차 3사(Volvo 승용차, Volvo 트럭, Scania)를 비롯,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강소기업을 보유한 제조업 강국
 - ICT, 생명공학, 자동차, 재생에너지, 산업기계, 제지, 광업 등 다양한 분야가 발달했으며, 다수의 유니콘*을 배출한 스타트업 허브 국가
- * Skype, Spotify, King, Mojang, Klarna, Kry, Einride, Voi, Evolution Gaming 등
- 북유럽 진출 교두보
 -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북유럽과 EU 시장의 주요 연결통로
 - 시장 규모 또한 주변국 관계 및 지정학적 접근성을 감안하면 노르딕과 발트해 3국을 포괄한 인구 3천만의 고급 소비시장 허브(Hub)로 보는 것이 타당
 - 60%를 상회하는 EU 국 교역비중은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의 활용가능성 제시

□ 구매력, 소비 성향

- 높은 소득과 안정된 경제
 - 스웨덴은 강력한 제조업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잘 발달된 사회보장 제도는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 소비 여력 뒷받침
 -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소비가 둔화됐으나 점차 서비스 부문 지출이 회복되는 등 완만한 소비 회복세

- 스웨덴 가계의 소비 성향은 실용성과 품질 중시, 수입품에 대한 개방성
 -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 관련 비용, 교통비, 음식 및 비알코올성 음료 순
-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 거래가 보편화되어 있고, 구매 후 자유로운 반품이나 교환 등 소비자 보호 제도 우수

□ 주요 인증

- CE 인증
 - EU 시장 내 안전 관련 통합 인증마크로 제품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 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
 - 1993.7.22. 도입, EU 지침 93/68/EEC를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
 - CE 인증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약품,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
- CPNP(화장품 인증)
 - 화장품은 스웨덴 등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필요
 - 화장품은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
 -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 EU 역외 기업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역내 책임자(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이 대행업체로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하면 되며, 필요 서류는 ISO 인증서 사본, 제품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분석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 등
-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 RoHS는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 지침
 -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
 - * 납 : 0.1%, 수은 : 0.1%, 육가크롬 : 0.1%,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카드뮴 : 0.01%,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이상 포함 제품 판매 금지
-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 화학물질 관리 제도인 REACH는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규정
 -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물질 관리 대상

- e-Mark
 - EU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로써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제도
 -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관리부로부터 인증서 수령 필요.

□ 해당 시장의 전략적 가치

- 테스트베드로서의 가치
 - 높은 소득 수준과 IT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성능 및 시장성 테스트를 하기에 좋은 환경
-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 구축의 거점
 - 실용성과 품질을 중시하는 스웨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곧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도움
- 유통망 진출의 교두보
 -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며, 대형 유통 체인점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유통망에 진입하면 스웨덴을 넘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인접 북유럽 국가 시장으로의 확장 용이
-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시장
 - 스웨덴에서는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책임에 대한 인식 고조
 -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한다면, 스웨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성이 중시되는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 진출 시 고려 사항
 - 소비자들의 실용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품질, 내구성, A/S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단기적인 성과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필요
 -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투자 필수
 -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현지 유통채널과의 협력 시 시장 진입 유리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2024년 1,9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0.8% 감소
 - 2025년 상반기 기준, 수출 94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
- (수입 규모) 2024년 1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감소
 - 2025년 상반기 기준, 수입 8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

스웨덴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역외수출	197.4	-0.8	195.7	-0.8	94.3	-6.1
역외수입	193.0	-4.8	189.0	-2.0	86.8	-8.7
무역수지	4.4		6.7		7.5	
총 교역	390.4		384.7		184.1	

자료: Global Trade Atlas('25.9. 기준)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24 기준)

- (수출국)
 - 주요 수출국은 노르웨이, 미국, 독일, 덴마크, 영국 순
 - 한국은 스웨덴 수출 22위, 對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9.2억 달러
- (수출 품목)
 - 스웨덴의 수출은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과 제약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자원 기반 산업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스웨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기계 및 운송장비로 특히 엔지니어링 부문이 수출의 약 50% 차지
 - ▶ 핵심 수출품은 자동차, 산업용 기계, 통신 장비
 - 이외 의약품, 플라스틱, 유기화학 물질 등 화학제품, 광물 및 광산 관련 제품, 임업 제품
- (수입국)
 - 주요 수입국은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중국, 덴마크 순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주로 EU 역내에서 수입
 - 한국은 스웨덴 수입 27위, 對한국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6.6억 달러

- (수입 품목)

- 스웨덴의 수입 구조는 자국 내 생산으로 충족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재와 에너지원, 다양한 소비재 중심
- 자동차 및 부품, 컴퓨터, 전자통신 장비 등 스웨덴 산업과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품목이 총 수입의 약 50%
- 원유, 정제유 등 광물성 연료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 원료 및 완제품, 식료품 및 음료, 기타 소비재 순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수출입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어 교역규모 확대 잠재력 보유
 - 스웨덴의 주요 수출품(자동차, 기계류, 의약품 등)과 한국의 주요 수출품(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기기 등)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 형성
- 스웨덴과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 다대
 - 최근 바이오, 디지털 경제, 원자력,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획 확대 모색
 - 단순한 상품 교역을 넘어 기술 및 산업 협력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양국 간 교역 규모 확대와 질적 성장 견인 예상

- 교역 규모

- (수출)

- 2024년 한국의 對스웨덴 수출은 1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
 - 2025(1~7월) 기준, 한국의 對스웨덴 수출은 8억 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

- (수입)

- 2024년 한국의 對스웨덴 수입은 19.4억 달러로 전년 대비 7.4% 감소
 - 2025(1~7월) 기준, 한국의 對스웨덴 수입 11.7억 달러 4.0% 증가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 2024년 최대 수출 품목은 전기자동차이나 캐즘 현상으로 전년 대비 40.0% 감소, 2위 무기류(13,663%), 3위 기타 자동차(-46.9%)
 - 기타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2022년부터 급격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다 감소, 2위 무기류는 큰 폭 성장
 - 2025(1~7월) 對스웨덴 최대 수출 품목은 전기자동차로 전년 대비 93.5% 증가, 2위 무기류(0%), 3위 기타 자동차(20.1%) 순

- ▶ 지난해 경기 위축, 전기자동차 캐즘현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자동차 수출 회복 기미
- ▶ 스웨덴 내 우리 기업의 자동차 판매실적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일부 한국 브랜드 차량 모델이 유럽 역내에서 생산·공급되고 있어 對한국 직수입이 감소할 가능성 상존

한국의 對스웨덴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7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	총 수출	1,366	-1.5	-	총 수출	809	-5.0
1	전기자동차	249	-40.0	1	전기자동차	305	93.5
2	무기류	34	13,663.8	2	무기류	64	0.0
3	기타자동차	72	-46.9	3	기타자동차	57	20.1
4	합성수지	48	-22.0	4	합성수지	35	15.2
5	타이어	39	8.9	5	타이어	27	1.9
6	아연도강판	40	57.2	6	아연도강판	25	32.6
7	축전지	46	75.6	7	축전지	25	0.4
8	자동차부품	56	-8.3	8	자동차부품	25	-35.4
9	집적회로반도체	42	-9.8	9	집적회로반도체	22	-15.9
10	의약품	42	-45.9	10	의약품	18	-21.8

자료: 한국무역협회('25.9.3.)

(수입)

- 2024년 주요 수입 품목은 의약품(-34.27%), 기타자동차(-1.7%), 화물자동차(10.1%) 순으로 상위 품목은 전년과 동일
 - ▶ 화물자동차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의약품과 기타자동차는 감소
- 2025(1-7월) 대 스웨덴 상위 수입품목은 의약품(57.7%), 기타자동차(-20.1%), 화물자동차(-37.4%)로 동일

한국의 對스웨덴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7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	총 수입	1,942	-7.4	-	총 수입	1,175	4.0
1	의약품	269	-34.2	1	의약품	239	57.7
2	기타자동차	340	-1.7	2	기타자동차	151	-20.1
3	화물자동차	157	10.1	3	화물자동차	54	-37.4
4	합성수지	81	-12.0	4	합성수지	53	18.2
5	원동기	87	-20.9	5	원동기	41	-17.2
6	반도체제조용장비	49	361.5	6	반도체제조용장비	40	2.8
7	기타철강제품	51	2.3	7	기타철강제품	26	-15.4
8	철광	11	190,718.4	8	철광	23	111.1
9	계측기	17	-3.6	9	계측기	22	104.0
10	제재목	30	-20.9	10	제재목	19	0.5

자료: 한국무역협회('25.9.3.)

- 한국의 스웨덴 내 수출시장 점유율

- 해당 시장 내 우리 기업의 핵심 수출 품목 관련 동향

- ▶ 한국의 對스웨덴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전기차, 전자기기 및 IT 제품, 기타 소비재 및 부품 등
- ▶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은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고 보증 기간이 길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
- ▶ 무선전화기, PC, 가전제품 등도 품질에 대해 긍정적
- ▶ 합성수지, 타이어, 화장품 등도 꾸준히 수출되며 특히, 화장품의 경우 스웨덴 내 K-뷰티 열풍으로 수출 증가세

- 해당 시장 내 최근 우리 상품 위상 변화 등

- ▶ 최근 K-팝, K-드라마 등 한류 영향으로 삼성, LG, 현대, 기아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상승
- ▶ 단순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디자인을 겸비한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이미지 구축

□ 스웨덴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스웨덴·노르웨이 진출전략 : U기업(스웨덴 F사 및 노르웨이 U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열전사 필름(Heat Transfer Vinyl, HTV) 분야에서 기술력 우수
 - 경쟁사 대비 품질 및 생산 안정성 우수
- 필수 인증 : HS코드 392190(플라스틱 시트, 필름) 관련 표준 및 안전 규격 준수
- 성약 소요 기간
 - 2023.12 : 지사화서비스 가입(6개월)
 - 2024.3 : 온라인 바이어 미팅 1건 진행, 성약은 미연결
 - 2024.5 : 지사화 서비스 졸업
 - 2024.10 : 스웨덴 출장 및 관심 바이어 3개사 대면 상담 지원
 - 2024.11 : 지사화 서비스 갱신(1년)
 - 2024.11~12 : F사 후속 상담 진행
 - 2025.3 : 스웨덴 첫 수출 성약(5,917 USD)
 - 2025.4 : 노르웨이 관심 바이어 발굴 후 온라인 미팅 진행
 - 2025.7 : 스웨덴 2차 거래 성사(14,162 USD)
 - 2025.6 : 노르웨이 첫 성약 수출(12,435 USD)
- 바이어 발굴 경로
 - 무역관 보유 바이어 DB 활용
 -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 관심 바이어 접촉 및 매칭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데이터 분석을 통한 HS코드별 유력 바이어 선제 식별이 성약 핵심 요인
 - 화상 상담회 및 후속 미팅을 통해 실제 수출 기회로 연결
 - 바이어 요청 사항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신속 대응 및 제품 경쟁력이 거래 성사에 결정적
 - 지사화 서비스, 출장 지원, 현장 미팅 등 무역관의 지속적 관리와 적극적 교신이 성공 촉진



성공 사례로 보는 스웨덴·노르웨이 진출전략 : D기업(스웨덴 T사 및 노르웨이 A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한국 식품 전문 제조업체로 장류, 소스, 김치 등 다양한 제품 생산
 - 국내외 거래 경험을 통한 품질 및 공급 안정성 우수
 - 북유럽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한 기존 거래 실적 기반
- 필수 인증
 - HS코드 210390(기타 소스 및 조제품) 관련 표준 및 안전 규격 준수
 - 스웨덴·노르웨이 수출 관련 현지 식품 규정 준수
- 성약 소요기간
 - 2024.5 : 스웨덴 출장 지원, 스웨덴 유력 유통사 T사 현장 지원
 - 2024.6 : 스웨덴 첫 성약 발생
 - 2024.9 : 지사화 사업 가입
 - 2024.11 : 바이어 온라인 미팅 2건 진행, T사 후속 상담
 - 2025.3 : 국내 기업 스웨덴 출장 지원, 바이어 2개사 대면 상담 지원, T사 후속 상담 진행
 - 2025.9 : 지사화 사업 갱신
 - 2025년 7월 기준 : 스웨덴 성약 89,258USD/노르웨이 성약 753,355USD
 - 상시 지원 : 시장 조사, 가격·제품 정보 업데이트 등 바이어 요청 자료 제출 및 팔로우업
- 바이어 발굴 경로
 - 무역관 보유 바이어 DB 활용
 - 이메일 및 전화(Telemarketing)를 통한 관심 바이어 접촉 및 매칭
 - 국내기업 요청에 따른 현지 바이어 추가 발굴 및 대면 상담 지원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기존 북유럽 거래 실적이 신뢰 기반이 되어 신규 바이어 성약을 용이하게 함
 - 상시 화상 상담 및 현장 출장 지원을 통해 성약 논의 구체화 및 후속 거래 확대 가능
 - 국내 기업의 신속 대응과 제품 품질이 바이어 신뢰 확보에 결정적
 - 시장 조사, 자료 제공 등 지속적 지원이 장기적 관계 구축과 성약 성사에 기여



성공 사례로 보는 스웨덴 진출전략 : 향수 제조 기업 아로사 (현지 Baestyle Sweden 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한국의 자연과 감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독창적 조향과 감성적 패키지를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구현하며, CPNP 등록을 완료한 제품을 기반으로 K-퍼품을 대표하여 국내외 시장 확장을 본격 추진
- 필수 인증 : CPNP
- 성약 소요 기간 : 4개월
- 바이어 발굴 경로 : 무역관 자체 현지 바이어 발굴 조사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유럽 CPNP 등록과 같은 필수 제도적 요건을 선제적으로 충족함으로써 EU 진출 과정에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출 경쟁력 강화
 - 한국적인 향의 브랜드화를 통해 기존 해외 향수 브랜드와의 차별점 확립

□ 주요 경쟁국 동향

- 스웨덴 수입 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 동향
 - (한국) 스웨덴과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전기차, 무선전화기, 타이어, 화장품 등 소비재 및 고부가가치 산업 부품 수출이 주, 최근 K-뷰티 열풍으로 화장품 수출 증가
 - (중국) 스웨덴 주요 수입 파트너 중 하나로, 주로 공산품과 소비재를 중심으로 교역 활발, 유럽 연합 국가들을 제외하면 스웨덴 주요 수입 파트너 1위
 - (일본) 자동차, 전기기기 등 제조업 기반의 수출이 주, 스웨덴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제품으로 인식
 - (베트남) 스웨덴의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 중, 섬유 및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적 제품 중심으로 수출 증가

□ 주재국의 대외 수입 규제, 對韓 수입 규제 등

- 규제 건수, 주요 내용
 - 스웨덴 자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특별한 수입 규제 조치를 발효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 규제는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한-EU FTA가 발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은 EU 시장에서 관세 혜택 수혜
 - 다만 특정 철강 제품 등은 EU 차원의 반덤핑 조사 및 규제 대상
- 기타(향후 전망 등)
 - 한-EU FTA로 양측 간 무역 장벽이 낮은 만큼, 향후 무역 활성화 전망
 - 기술력과 디자인을 겸비한 한국산 제품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프리미엄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일본 및 기타 유럽국 제품들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다. 산업

□ 주요 산업 개요

- 제조업 전반
 - 제조업은 스웨덴 GDP의 약 23~33%를 차지하는 중요 경제 축
 - 첨단 제조(advanced manufacturing) 분야는 전체 GDP의 약 20%로 수출의 75% 차지,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경제 구동의 핵심
 - 주요 산업군은 철강, 자동차, 화학, 임업, 기계·자동화 장비, 정밀기기, 식음료 가공
 - 대표 기업은 Volvo, Saab, Ericsson, ABB, AstraZeneca, Electrolux, IKEA 등
- 자동차 산업
 - 자동차 산업은 볼보그룹(Volvo Group), 볼보승용차(Volvo Cars), 스카니아(Scania) 중심

- 승용차는 볼보승용차(Volvo Cars)가 주도, 트럭, 버스 등 상용차는 볼보그룹(AB Volvo)과 스카니아(Scania)가 대표적
- 승용차는 생산의 85%, 상용차는 생산의 95%를 수출하고 있어, 자동차 수출은 총 수출의 15% 차지
- 철강 산업
 - 철강 산업은 스웨덴의 핵심 기반 산업
 - 최근 'HYBRIT' 프로젝트와 같이 화석 연료 대신 수소(Hydrogen)를 사용하는 '그린 스틸(Green Steel)'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트렌드 선도
- 기계·장비 산업
 - 기계류 산업은 스웨덴 제조업의 핵심을 이루며, 총 수출의 15% 내외
 - ABB, Atlas Copco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산업용 로봇, 공압 장비, 건설 장비 등에서 기술 중심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
 - 스웨덴이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산업 경쟁력 제고를 넘어, 구조적 경제 환경(높은 임금 및 노동비용), 강력한 사회적 합의(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사회적 신뢰), 지속가능성 및 기후 목표 연계 등 구조적, 사회적, 국가적 요인이 작용
- 전자·통신 산업
 - 전자·통신 산업은 스웨덴의 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분야로 총 수출의 9~10% 차지
 - 주요 기업인 에릭슨(Ericsson)은 세계적인 통신 장비 제조 기업으로, 5G 및 6G 통신 기술 선도
- 제약·의약품 산업
 - 제약·의약품 산업은 수출 효자 품목으로 총 수출의 8% 내외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화학/제약 제품의 수출 점유율 크게 확대

(참고) 최근 스웨덴 주요 산업의 전체 수출 비중 추이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HS	산업	비중	HS	산업	비중	HS	산업	비중
84	기계류 및 기계기구 (원자로·보일러 포함)	15.50	84	기계류 및 기계기구 (원자로·보일러 포함)	15.34	84	기계류 및 기계기구 (원자로·보일러 포함)	15.36
87	자동차류(철도·전차용 제외, 부품 포함)	14.87	87	자동차류(철도·전차용 제외, 부품 포함)	14.28	87	자동차류(철도·전차용 제외, 부품 포함)	13.19
85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 (및 그 부품)	8.90	85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 (및 그 부품)	9.34	85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 (및 그 부품)	9.46
30	의약품	8.10	30	의약품	7.64	30	의약품	7.26
27	광물성 연료 및 광물유(및 그 증류물· 역청·광물성 왁스)	6.90	27	광물성 연료 및 광물유(및 그 증류물· 역청·광물성 왁스)	6.90	27	광물성 연료 및 광물유(및 그 증류물· 역청·광물성 왁스)	6.78

자료: Global Trade Atlas('25.9.3.)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제조업 전반
 - 스웨덴 제조업은 디지털 기술, 데이터 분석, 로봇 기술을 적극 도입
 - 정부-산업-학계-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쿼드러플 헬릭스(Quadruple Helix)’ 모델을 통해 혁신 추진
 - 지속가능성과 스마트 제조를 위한 첨단 시스템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
- 자동차 산업
 - 볼보승용차는 2030년까지 전기차 전문 브랜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산업 전반의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
 - 2023년 볼보 승용차의 대규모 감원은 전기차로의 전환과 관련 효율성 증대
 - 비용 절감 노력
- 철강 산업
 - 철강 산업은 ‘HYBRIT’ 프로젝트와 같이 화석 연료 대신 수소(Hydrogen)를 사용하는 ‘그린 스틸(Green Steel)’ 생산 기술을 개발하며 글로벌 트렌드 선도(지속가능성 목표 부합 혁신 사례)
- 기계·장비 산업
 - 스웨덴 제조업의 핵심을 이루며,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
 - 산업용 로봇, 공압 장비, 건설 장비 등에서 기술 중심 혁신
 -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생산성 증대
- 전자·통신 산업
 - 산업 간 연계 : 전자 기술은 의료 기술(MedTech), 국방, 자동차 등 다양한 첨단 산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창출
- 제약·의약품 산업
 - 전통적인 제약 산업을 넘어 생명공학(Biotechnology), 의료 기술(MedTech), 나노 기술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영역 확장
 - 스톡홀름-옵살라 지역과 말뫼-코펜하겐 지역은 유럽의 주요 바이오테크 클러스터로 성장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스웨덴의 FDI 유입 현황
 - 스웨덴의 자유무역 및 규제 완화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투자 유입 강세
 - 2008년(369억 USD)을 정점으로 2009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 글로벌 경기 침체기인 2018년

- 59억 달러, 2019년 83억 달러로 감소
- 2020년 206억 달러, 2021년 248억 달러로 회복 후 2022년 524억 달러로 크게 증가, 2023년에는 249억 달러, 2024년 182달러로 다시 감소(UNTAD)
 - '25년 상반기에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25년 2분기 스웨덴 투자 유입액은 647억 SEK(약 69.4억 USD)로 전년 동기(24억 SEK, 약 2억 5,728만 USD) 대비 약 2,500% 상승하는 등 큰 폭 증가(스웨덴 통계청, '25년 9월 기준)
 - '25년 2분기 기준 對스웨덴 최대 투자국은 미국(466억 SEK), 네덜란드(94억 SEK), 영국(82억 SEK), 아일랜드(60억 SEK) 등(스웨덴통계청, '25년 9월 기준)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주요 투자 유치 산업(스웨덴통계청, '25년 9월 기준)
 - '25년 9월 기준 '24년도 산업별 투자 순위는 정보통신 분야(883억 SEK),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제품(458억 SEK), 운송장비(455억 SEK), 도·소매업 및 자동차 수리(440억 SEK), 금융 중개, 보험·연금 기금 서비스(398억 SEK) 순
 -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정보통신 및 운송,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투자는 증가세('23년도 對스웨덴 투자 유치산업은 제조업, 석유화학 및 도·소매업 순)

□ 주요 경쟁국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중국과 일본의 對스웨덴 투자 현황
 - 중국은 '24년 기준 272억 SEK(약 29.2억 USD)를 투자해 아시아 국가 중 1위, 전체 국가 중 4위
 - 중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2위인 일본의 對스웨덴 투자 유치는 '24년 기준 84억 SEK(약 9억 USD)로 이는 전체 국가 중 7위(스웨덴 통계청, '25년 9월 기준)

□ 스웨덴의 對韓 투자 현황

- 스웨덴의 對한국 FDI 현황
 - 외국인투자통계(INSC)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웨덴의 對한국 투자 신고액은 '21년 5,600만 달러, '22년 8,600만 달러, '23년 7,300만 달러로 완만한 흐름을 이어오다가 '24년 3억 6,500만 달러로 크게 상승, 그러나 2025년 9월 현재까지의 투자 신고액은 2,800만 달러로 다소 저조한 수준
 - 스웨덴의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한국에 진출, 현재 한국에 진출한 스웨덴 기업은 약 120여 개사(Volvo, IKEA, Wallenius Logistic, Atlas Copco, EQT Partners, Scania, Envac, Ericsson 등)

스웨덴의 對한국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9월
신고금액	56	86	73	365	28
신고건수	11	10	20	24	8

자료: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통계(INSC) '25년 9월 15일 기준

• 주요 투자 분야

- (지분 인수 및 재무 투자) 산업기계,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및 테크 기업 인수 투자 등 지분투자가 꾸준히 지속
 - 사모펀드 운용사 E사 한국 테크기업 R사와 인수 투자('25년)
 - 기계장비 제조기업 A사 한국 K사 인수합병 투자('25년)
-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한국에서 다양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가운데 노르웨이, 스웨덴이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
 - * 스웨덴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사 H사 증액 투자 진행('24년)
- (금융서비스) 외투 기업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금융서비스 투자 지속
 - * 상용차 제조·판매 V사와 S사의 구매 고객 지원 직영 할부금융 투자 진행('23~'25년)

□ 한국의 스웨덴 투자 진출

- 현재 스웨덴에 진출하여 영업 중인 한국 기업은 총 19개(법인 15, 지사 4)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제일노르딕, 제일엠앤에스, 동진세미켄, 웰코스, 엠플러스, 원익피앤이, 세종기술, 에스에프에이가 법인으로 진출
 - 지사 진출기업은 대한항공카고, HS AD, LX판토스, 금호타이어
- 공급망, 탄소중립 분야 투자
 - 제일엠앤에스, 동진세미켄, 웰코스, 엠플러스, 원익피앤이, 세종기술, 에스에프에이사는 Northvolt(스웨덴 전기차배터리 생산업체)사와의 협력을 위해 2020~2022년 사이 스웨덴에 법인 설립
 - 2025년 3월 Northvolt 파산 이후 일부 진출기업 축소 운영 중

한국의 對스웨덴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1Q.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투자금액	226	116%	51	-77%	531	943%	16	-97%
신규 법인 설립 건수	5	-44%	3	-40%	4	33%	0	-100%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 북유럽 직접 판매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현대자동차 스웨덴 현지법인으로 2023년 Hyundai Motor Sweden AB 설립, 스톡홀름 솔나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판매 및 유통
- (성공 사례)
 - 2024년 7월부터 기존 수입사(Hyundai Bilar Import AB)에서 직접 운영 구조로 전환, Agent 판매 모델 도입을 통해 가격 투명성 및 애프터서비스 네트워크 확장
 - 전기차(IONIQ 5, IONIQ 6 등) 중심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 (시사점)
 - 전기차(EV)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가 높고, 충전 인프라가 발달한 스웨덴 시장에 친환경 포트폴리오 차량을 통한 현지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 늘리고 있음
 - 가격 투명성과 계약/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의 고객경험 개선이 브랜드 신뢰에 직결됨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기아자동차, 북유럽 자동차 시장 브랜드 포지셔닝

- (기업 정보) 2001년 기아자동차의 스웨덴 현지법인인 Kia Sweden AB 설립, 스톡홀름 근교에 본사 위치, 스웨덴 내에서 자동차 판매, 유통, 애프터서비스 등을 담당하며 현지 시장 운영을 총괄
- (성공 사례)
 - Kia는 보증기간(warranty), 서비스 후 지원(after-sales service) 같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소에서 타 브랜드에 비해 경쟁 우위 확보
 - 환경 규제, 소비자 인식 등 친환경 차량의 수용도가 높은 스웨덴 시장에 맞춘 친환경 차량 및 서비스 전략
- (시사점)
 -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는 보증, 서비스 네트워크, 브랜드 신뢰, 사용자 경험 등 부가가치 요소들을 강조함으로써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의 명확화로 인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노포 1988, 몬스터치킨, 한식 시장 공략을 위한 교포기업

- (기업 정보) 몬스터치킨(2022)은 한국 프라이드치킨 전문점, 노포1988(2024)은 한국 스트리트푸드 전문점으로 2022년 몬스터 치킨 1호점을 시작으로 노포1988을 포함하여 스웨덴에 총 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합작 투자기업
- (성공 사례)
 - 2022년 스톡홀름에 한국식 프라이드치킨 전문점 'Monster Chicken'을 오픈, 한국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메뉴 개발, 개점 2년 만에 스톡홀름 2호점, 읍살라 3호점 확장
 - 2024년 스톡홀름에 분식을 전문으로 하는 'Nopo 1988' 개점, 다양한 한국의 길거리 음식 소개
 - 음식의 맛과 더불어 젊은 트렌드에 맞춘 인테리어 등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

- (시사점)
 - 스웨덴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트렌드 및 현지화에 대한 시장 조사가 필수적
 - 현지의 식문화 및 식당 운영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
 - 소셜 미디어, 이벤트 등 타겟 소비자층에 맞는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확보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인사·노무) 높은 인건비 및 사회보장제
 -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제(급여의 31.42%) 납부 의무 및 높은 인건비
-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스웨덴 FDI법)
 - 스웨덴 안보·공공질서 관련 핵심 산업(에너지, 국방, 통신, 우주, 통신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시 정부의 사전 신고·심사 필요
- 기타 불편 요소
 - (운전면허)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스웨덴 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간만 인정. 일정 기간 체류 시 해당 기간만 외국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 비용 발생
 - (비자)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이 오래 걸려 우리 기업의 對스웨덴 주재원 파견에 애로 다대

2. 유망 산업

가. 에너지(원전 포함)·전력기자재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2023년 스웨덴의 전력 생산량은 162.4TWh로 149.5TWh이던 2013년에 비해 12.9 TWh 증가
 - 전력원별 비중은 수력이 40.5%로 1위, 2위 원자력(28.8%), 3위 풍력(21.2%)
- 최근 수출입 동향
 - 스웨덴은 전력 생산량이 풍부하여 유럽 최대 전력 순 수출국 중 하나로 주로 풍력 터빈, 변압기, 전력 케이블 등과 같은 전력 기자재 수입
 - 스웨덴의 풍력 및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는 전력 기자재 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따라 향후 원자력 관련 기자재 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원자력발전
 - 1966~1985년 사이 총 12기의 원자로를 건설해 운영, 수명이 다한 원전 6기를 폐쇄하고 현재는 Oskarshamn(오스카스함), Ringhals(링할스), Forsmark(포스마크) 원전에서 6기만 운영
 - 2023년 기준, 원자력 발전량은 스웨덴 총 발전량의 30% 내외, 스웨덴 전 가정과 차량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 오스카스함 원전(1기 운영, 2기 폐쇄)은 OKG AB(독일 Uniper 자회사)와 핀란드 국영 발전기업 Fortum이 각각 54.5%와 45.5%의 지분 소유
 - 링할스 원전(2기 가동, 2기 폐쇄)은 Vattenfall(스웨덴 국영 발전기업) 70.4%, 독일 Uniper사가 Sydkraft AB를 통해 29.4% 소유
 - 포스마크 원전은 현재 원자로 3기를 운영 중이며, 주 소유주는 Vattenfall(66%), Fortum(25.5%), Uniper(8.5%)
- 수력발전
 - 스웨덴 내 수력발전소는 약 2,000개로 이 중 설비용량 10MW 이상 발전소는 200여 곳
 - 가장 큰 수력발전소는 Harsprånget 발전소로 설비용량 830MW이며, 연간 약 2TWh 전기 생산
 - 북부 Norrland 지역 소재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은 스웨덴 총 수력 발전량의 80% 차지
 - 주요 수력발전 기업으로는 Vattenfall(스웨덴 국영), Fortum(핀란드 국영), E.ON(독일), Skellefteå Kraft(셰레프테오 지방정부 소유), 이외 여러 지자체가 수력발전소 소유

- 풍력 발전

- 스웨덴은 강풍이 부는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풍력 발전에 유리한 조건
- 스웨덴 총 전력의 약 21%(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풍력 발전은 2023년 말 기준 총 5,506개의 대형 풍력터빈 설치, 이들 중 90여 개가 해상 풍력단지에 소재
- 2023년 기준 스웨덴 내 풍력발전소 소유주는 약 840명으로 소유권이 매우 분산, 상위 1~27위 소유주가 총 풍력 발전량의 61.7% 생산

(참고) 스웨덴 에너지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Vattenf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최대 발전사로 수력·원자력·풍력발전 공기업 • 포스마크 원전(66%)과 링할스 원전(70.4%) 운영 및 관리(괄호 안은 지분율) • 원자력 발전량은 연간 약 23TWh • 전력 생산(원전, 수력, 풍력), 배전, 판매 모두 담당 • 스웨덴 전력 판매시장의 약 20% 점유 •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사업도 활발 <p>* Alfa Laval, Volvo, SKF 등 산업체와 함께 'Industrikraft'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자력을 포함한 화석 무배출 전력 투자 검토 중</p>
Svenska kraftnä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전력청으로 전국의 송전망 운영 • 15,500~17,500km 길이의 220~400kV 송전선 관리 • Nord Pool(노르딕 전력거래소)과 국제 연계 담당 • 2030년까지 대규모 그리드 확충에 투자 중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① 신규 원전건설

- 스웨덴은 전력 수요 증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 고조로 2035년까지 최소 2기, 2045년까지 총 10기의 신규 원전 도입 추진
- 삼성C&T가 Vattenfall(국영 에너지기업으로 원전 운영)이 발주한 신규 원전건설 프로젝트(SMR) 우선협상대상자 GE Hitachi사와 협력 중이고, 스웨덴 SMR 부문 민간개발사인 Kärnfull Next (센풀 넥스트)사와도 협력 계약 체결('24년 12월 초) → 향후 우리 원전 건설업체와 전력 기자재 업체의 스웨덴 시장 진출 가능성 기대
- 또한 현대건설이 Vattenfall의 대형 원자로 부문 우선협상대상자인 Westinghouse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력 중으로, 향후 대형 원자로 부문에서도 협력 가능성 기대

- ② 원자력발전 연구 분야

- 스웨덴은 1980년대 이후 신규 원전을 건설한 사례가 없고, 그동안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면서 원자력 분야의 연구와 전문성이 상당 부분 정체된 실정
- 이에 따라 향후 원자력 분야의 지식과 능력 재건을 위한 노력이 커질 전망

- ▶ 한-스웨덴 양국 간 공동 연구 및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 필요

③ 고압전선

- 증가하는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 진행, 노후 전력 망 보수와 신규 전력망 건설
- 2035년까지 235TWh 규모의 전력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NordSyd 프로젝트(스웨덴 내 전기 구역 2와 전기 구역3 사이의 전력 전송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 ▶ 관련 시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은 물론 유력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노력 필요
- (대한전선) 스웨덴 전력청인 스벤스카 크라프트네트(Svenska kraftnät)와 약 1,1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 계약 체결
 - ▶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도심을 관통하는 420kV급 지중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스톡홀름 북부 '안네베르크(Anneberg)' 지역과 남부 '스칸스톨(Skanstull)'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프로젝트
 - ▶ 대한전선은 420kV급 케이블과 전력기기 등 관련 자재 일체를 공급하고, 접속 공사와 준공 시험까지 시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프로젝트 진행
 - ▶ 이번 수주는 420kV 전력망이 스웨덴에서 사용되는 지중 교류 케이블 중 가장 높은 전압으로, 엄격한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까다로운 시장에서 대한전선이 기술력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

④ 초고압 변압기(효성중공업)

- 스웨덴 전력청(Svenska Kraftnet)과 420kV 초고압 차단기 수주 계약
 - ▶ 스웨덴 스톡홀름시 남부 전력변전소에 초고압 차단기 공급시작('20년 1월)
- Vattenfall(스웨덴 국영 전력업체)로 부터 변압기 수주('23년)
 - ▶ 2023년 2대, 2024년 2대, 2025년 2대를 공급했으며, 2026년 1대, 2027년 1대, 2028년 2대 등 순차적 납품 예정
 - ▶ 변압기 1대당 80~120억 원 수주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스웨덴은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2.4배, 남한의 4.5배에 달해, 전력 송·배전 인프라의 커버리지가 넓어 신규 장비 수요는 물론 노후 장비의 교체 수요가 크고, 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 수요 또한 높은 편
- 스웨덴 정부가 2040년까지 전력 생산 에너지원을 100% 無化石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임에 따라 원전(SMR 및 대형 원자로)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수소에너지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비 수요는 물론 신기술 수용에도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
- 풍력발전 부문
 - 최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태양광 등 가격 중심에서 점차 풍력과 같은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풍력발전도 육지에 가까운 해변 땅속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던 것에서 점차 해상 부유식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추세

- 시장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요구
- 다만, 스웨덴 정부가 최근 발트해 근처의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다수를 안보상 이유로 미 승인한 사례가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능동적 대처 필요
- 한국은 풍력발전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관련 장비·부품 우수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에 필요한 설계뿐만 아니라, 구매와 건설 부문에서도 협력 기회 많을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풍력 타워 및 풍력 구조물 등 설비 장치의 진출 가능성 적극적 확대 필요
- 공동 기술 개발 및 전력 기자재 공급
 - 풍력발전 이외 태양광 발전, 조력발전, 파력 발전 분야에 대한 투자도 증가
 -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그린 수소 인프라 구축 또한 본격화
 - 한-스웨덴 양국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과 부품 장비 공급 기회를 타진해 보는 것도 필요
 - 특히, 수소에너지 개발 분야는 현지 기업들도 한국이 선도적 기술 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제품 개발과 공동 마케팅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의 전초 기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편
 -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보 필요
- 진출 시 유의사항
 - 스웨덴은 최근 40여 년간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재 스웨덴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원전기술 인증은 없으며, 보통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요구하는 ASME 인증이나 EN 표준, DBA, KTA 등을 참고하는 경우가 일반적
 - 전력 기자재의 경우 스웨덴 공통 표준 및 CE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전 취득 필수

나. 화장품

□ 개요

- 스웨덴 화장품 시장은 85억 SEK(약 9.1억 달러, '24년 기준) 규모, 전년 대비 5% 성장
 - 화장품 시장은 성숙 시장이나 최근 들어 프리미엄 제품과 성분을 중시하는 혁신 제품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
 - Euromonitor에 따르면, 스웨덴 화장품 시장은 매년 5% 내외로 성장, 2029년 110억 SEK(약 11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유통채널은 생필품점과 슈퍼마켓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약국과 전문 뷰티 리테일러는 강세
 - 약국은 성분 중심 제품과 클린 뷰티 수요 증가로 점유율 확대
 - Kicks, Lyko 등 화장품 전문 매장은 프리미엄 제품과 옴니채널 전략으로 시장 주도
 - 온라인매장(전자상거래)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러들도 온라인으로의 전환 활발

• 현지 산업 규모

- 스웨덴 화장품 산업은 2023년 81억 크로나(약 8.1억 달러), 2024년 85억 크로나(약 9.1억 달러)로 꾸준히 성장
- 2025년에는 110억 크로나(약 11.7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 최근 수출입 동향

- 2024년 스웨덴의 화장품(HS 330491) 수입 규모는 약 2.5억 USD로 전년 대비 24.1% 증가
- 상위 수입국은 1위 덴마크(27.7%), 2위 이탈리아(27.1%), 3위 프랑스(12.9%)
- 한국은 수입 11위(1.7%)로 전년 대비 1,985.4% 성장하며 급부상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건강한 피부에 대한 관심 증가, 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로 스킨케어 시장 꾸준한 성장세

- 유통시장 1위는 로레알(L'Oréal Sverige AB)로 시장점유율 17%
- 성분 중심 포뮬러로 판매가 증가한 매스 브랜드로는 CeraVe, ACO, Apoliva, Eucerin 등
- 미니멀 디자인과 성능 중심의 포지셔닝으로 성공한 프리미엄 브랜드는 Kiehl's, The Ordinary, Rituals 등
- K-뷰티 브랜드로는 COSRX, Banilla Co, Beauty of Joseon 등이 있으며, 다단계 루틴, 성분 투명성, 차별화된 포지션으로 성장 중

스웨덴 화장품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Lyko Group 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의 대표적인 온라인 중심 뷰티 리테일러, 다양한 스킨케어·헤어케어 브랜드 취급 • 프리미엄 스킨케어 강화, 글로벌 브랜드와 K-뷰티 브랜드(COSRX, Banilla Co 등)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면서 젊은 소비자층 흡수 • 옴니채널 전략으로 온라인 기반 유지와 동시에 오프라인 체험 공간 확대. 브랜드 경험 제공 • SNS·인플루언서 협업, 틱톡 및 인스타그램을 통한 신제품 런칭 및 바이럴 마케팅 강화로 젊은 소비자층 집중 공략

자료: Euromonitor, Skin Care in Sweden Analysis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KICKS Kosmetikkedjan 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최대 규모 뷰티 전문 체인(약 230개 매장 운영),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뷰티 옴니채널 • 전자상거래 확대, 팬데믹 이후 온라인몰 강화 및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한 옴니채널 판매 구조 정착 •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으로 Lancôme, Kiehl's, Rituals 등 글로벌 브랜드와 협력해 스웨덴 소비자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수요 흡수 • 매장 내 뷰티 어드바이저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제품 추천 강화로 전문성을 기반한 판매 전략

자료: Euromonitor, Skin Care in Sweden Analysis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예뻐순수 (Yeppo & Soons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유럽 K-뷰티 전문 리테일 기업으로 한국에서 직접 수입한 스킨케어·메이크업·헤어·바디케어 제품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며 한국적인 분위기와 트렌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특징 •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테스트 사업을 진행하여 스웨덴 첫 진출 기업에 시장에서의 브랜드 노출, 고객 반응 확인 및 홍보 기회 제공 • Yeppo & Soonsoo와의 협업 SNS 마케팅 진행하여 국내 기업 마케팅 비용 부담 절감 및 현지화 마케팅 전략 추진 <p>* 접근성,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통한 고객과의 소통, 다양한 상품 및 브랜드 구성을 강점으로 북유럽 뷰티 시장에서 입지 강화</p>

자료: 코트라 해외시장뉴스_스웨덴 스킨케어 화장품 시장, 틈새 브랜드 부상에 따른 K-뷰티 인기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국내 유망 K-뷰티 중소기업의 Yeppo & Soonsoo 매장 입점 지원
- Yeppo & Soonsoo와의 협업 SNS 마케팅 진행, 국내 기업의 마케팅 비용 부담 절감 및 현지화 마케팅 전략 추진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향후 전망

- 스킨케어 시장은 한동안 강세 유지 전망으로 판매량 증가보다는 프리미엄화에 의존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저가 채널 확대로 매스 시장은 압박을 받으나, 품질·효과 중심 성분 제품의 수요는 지속 성장
- 약국 채널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및 합리적 프리미엄 세그먼트 매출 확대 예상
- 소비자 루틴은 단순화되면서도 효능·효과를 포기하지 않는 멀티 태스킹 제품 선호
- 당초 페이스 제품 위주였던 트렌드가 바디케어 영역(Beautility 제품)으로 빠르게 확산 중

• 기회요인

- 멀티기능 제품 수요로 인한 페이스급 성분을 바디케어에도 적용하는 Beautility 제품 확산
-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성분에 대한 인기 급증으로 향후 흑독한 기후·노화·활성 성분 과다 사용에 대응하는 제품군 기회
- 젊은 소비자층은 실험 성향이 높아 신규 브랜드 시도에 매우 적극적으로 K-뷰티 브랜드(COSRX, Banila Co, Beauty of Joseon) 수혜
- 바디 케어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로 프리미엄 성분·기능성 강조로 성장 기회 확대

다. 식품

□ 개요

- 스웨덴 식품시장은 성숙 시장
 - 최근 불확실성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외식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대신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식품이나 저가 제품·편의식품 위주로 판매 증가
 - 스웨덴 식품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숙 단계이나 최근 한류 열풍으로 라면과 K-푸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
 - 기존에는 즉석 라면이 저가·저영양 식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프리미엄 브랜드와 라면 전문점의 등장, 소셜미디어 확산 효과로 수요 급증
 - 스웨덴 라면시장은 2023년 약 3.5억 크로나(약 3,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성장, 한국산 라면은 수입 2위, 2028년에 3억 9,600만 크로나 규모로 성장 전망
- 현지 산업 규모
 - 스웨덴 식품시장은 매년 3~8% 내외로 꾸준히 성장
 - 2024년 기준, 식품시장은 기초식품 6,638억 SEK(약 660억 달러), 조리 식재료·간편식 2,830억 SEK(약 280억 달러), 소스·조미료 89억 SEK(약 8.9억 달러), 쌀·파스타·면류 52억 SEK(약 5.2억 달러)
 - 조리 식재료·간편식 시장은 프리미엄·건강 지향 제품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소스·조미료 시장은 2029년까지 107억 SEK(약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
 - 쌀·파스타·라면류는 2029년까지 60억 크로나(약 6억 달러)로 성장 예상
 -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음식에 대해 전반적 관심 급증
 - 스웨덴 대형 마트 체인에서도 라면, 고추장, 삼각김밥 취급
 - 한식 레스토랑은 한국 문화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빠르게 확산
 - 특히 불닭볶음면 챌린지와 같은 SNS 기반 트렌드는 한국 식품의 인지도 확대하는 주요 원인
 - 현지 소비자의 입맛을 고려한 현지화·퓨전 전략 활발히 추진 중
 - K-푸드 인지도는 SNS 바이럴·문화 트렌드에 힘입어 한식당, 패스트푸드 체인, 온라인 유통까지 확대
- 최근 수출입 동향
 - 2025(1~6월) 스웨덴의 식품 총 수입액은 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
 - 주요 수입국은 1위 네덜란드(12.7%), 2위 미국(10.9%), 3위 태국(9.8%)
 - 한국은 스웨덴 식품 수입 8위국으로 총 수입 시장의 0.8%를 점하고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 48.9%가 성장해 매우 고무적(GTA)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ICA Sverige 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웨덴 최대 식품 유통체인으로 프리미엄 PB·친환경 제품 강화 및 온라인 유통 확장을 통해 시장 지배력 확대 2024년 기준, 쌀·파스타·면류 분야에서 26.5% 차지, 기초식품 전체에서도 1위 PB(Private Brand) 제품 강화 “ICA Seleciton”, “I Love Eco” 라인업을 통해 프리미엄·친환경 제품 확대 온라인 쇼핑몰과 물류 시스템을 강화, Mathem.se와 경쟁하며 전자상거래 확대

자료: Euromonitor, Sauce, Dips and Condiments in Sweden Analysis, Staple Food in Sweden Analysis, Cooking ingredients and Meals in Sweden Analysis 제공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Axfood (Willys, Hemk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가형과 프리미엄형 채널을 병행, PB 제품군 확대, Mathem.se를 통한 전자상거래 경쟁력 강화 2024년 기준, 조리 식재료·간편식 분야 상위권, 쌀·파스타·면류 10.5%. 기초식품 전체에서 6위 차지 Willys는 저가형 할인점으로 가격 민감 소비자층 공략 “Garant” “Eldorado” “Minstingen”라인업을 통해 PB(Private Brand) 확대 PB 제품에 아시아 소스, 즉석 라면 등 추가, K-푸드 카테고리 진입 확대 Hemkop은 프리미엄 제품·건강식품 비중 확대

자료: Euromonitor, Sauce, Dips and Condiments in Sweden Analysis, Staple Food in Sweden Analysis, Cooking ingredients and Meals in Sweden Analysis 제공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Coop Sverige 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소비자 협동조합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마케팅 강조, PB제품 다각화와 옴니채널 전략으로 입지 강화 2024년 기준, 조리 식재료·간편식 분야 상위권, 쌀·파스타·면류 9.3%. 기초식품 전체에서 5위 차지 PB(Private Brand)로 “X-Tra”, “Änglamark(친환경라인)” 등 Coop 브랜드 강화 5개업 즉석라면 PB 제품 출시로 가격 민감 소비자층 공략 아시아풍 소스·조미료(Paneng curry, 아시아 스파이스 믹스 등) 제품 확대

자료: Euromonitor, Sauce, Dips and Condiments in Sweden Analysis, Staple Food in Sweden Analysis, Cooking ingredients and Meals in Sweden Analysis 제공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SNS 바이럴 효과를 활용한 신제품·매운맛 단계별 제품 입점
- Bergqvist Bryggeridepå AB 같은 전문 수입상과의 파트너십은 필수, 장기적·안정적 공급망 구축 필요
- Monster Chicken, Nopo 1988 등 한국 외식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앞으로 한국 기업과 현지 창업자의 프랜차이즈 모델·식재료 공급 협업 수요 존재
- Mathem.se 같은 온라인 식품 플랫폼 및 SNS 연계 마케팅 활성화, 한국 기업 제품 입점과 함께 틱톡 및 인스타 캠페인 공동 진행 수요 존재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향후 전망

- 스웨덴 식품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건강·웰빙·친환경·현지산 제품이며,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층은 저가 PB(Private Brand)를, 젊은 세대는 프리미엄·편의식·이색 메뉴를 선호하는 이중적 구조
- 기초식품 및 조리 식재료 분야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소매량 증가가 제한적이나, 프리미엄·웰빙·편의성을 내세운 제품군은 성장 예상
- 저당, 저염, 글루텐프리, 고단백, 비건·식물성 단백질 식품 수요 확대
- PB(Private Brand)도 프리미엄 라인(ICA Selection, Garant, Änglamark) 강화로 차별화 추구
- Mathem.se, ICA 온라인몰 등 전자상거래 채널 꾸준히 확대, 홈 딜리버리(Home Delivery) 및 디지털 마케팅 결합 필수 요소로 성장
- SNS·한류 효과로 불닭볶음면 등 K-라면, 고추장 소스류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 전망

• 기회요인

- 프리미엄·편의식 라면 수요 확산으로, 한국 제품의 다양한 매운맛 단계·컵라면·퓨전형 제품군 확대 기회
- 고추장·쌈장 등 K-소스가 현지 PB 신제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협업 수요
- From Sweden 캠페인과 유사한 국산 원산지 마케팅 트렌드에 맞춰, 한국 기업도 친환경 원료·지속 가능 포장 강조 필요
- 한식당 프랜차이즈 확산으로 인해, 치킨·분식·K-BBQ용 원재료·소스 납품 등 B2B 공급망 협력 확대
- 현지 소비자의 입맛을 고려한 현지화·퓨전 전략도 활발히 추진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무역협정) FTA 활용 등 협력 유망 분야

- 우리나라의 위치, FTA 활용 진출 주요 품목, 향후 활용 전망 등
 - 한국은 기술력을 갖춘 산업 강국으로 한-EU FTA를 통해 스웨덴 시장에서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
 - FTA 활용 진출 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제품, 화장품 등
 - 스웨덴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재건 계획에 따라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및 기자재, 스웨덴의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 진행으로 전력 기자재가 유망 수출 품목으로 부상
 - 소형모듈원전(SMR) 및 원전 기자재, 전력망 기자재 시장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 기대

□ (G2G)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스타트업 분야
 - '19년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스웨덴과 경험 개발 노력 확대 추진
 - 스웨덴은 핀테크, E-헬스 분야 기회 다대. 한국은 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문화 콘텐츠 등 기술력 보유 스타트업 다수
 - 핵심역량 분야의 상이로 기술협력에 의한 혁신 성장 기대
 - 양국 스타트업 지원 전문 기관 간 협력 채널 형성 및 가동
 - 2025년 현재 스웨덴은 AI·사이버보안·클라우드·6G 네트워크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정, EU 디지털 규제 이행과 연계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한국은 AI 반도체,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버보안 솔루션, ICT 콘텐츠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 보유, 한-EU FTA, 디지털무역협정(DTA) 협상 등을 통해 제도적 진입 기반 확보
 - 2026년 스웨덴 정부는 약 4억 7,900만 크로나(약 4,800만 달러)를 AI-데이터 개혁(AI-Data Reform)에 투입하고, 2027~2030년에 매년 약 5억 크로나(약 5천만 달러) 배정 계획
 - AI-데이터 개혁(AI-Data Reform)은 AI 워크샵, AI 팩토리, AI 샌드박스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스웨덴의 복지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
- 과학기술 분야
 - 스웨덴 성장시장의 기회 활용, 기존 단발성 부품 공급 위주에서 공동 R&D, 기술제휴 등 스웨덴 기업과의 협력관계 재정립
 - 북유럽 과학기술협력센터 개소



성공/실패 사례

- 개요
 - 한-스웨덴 IT 협력은 2019년 정상외교 이후 양국 간 협력 채널이 본격 가동되었으며, 2024~2025년에는 AI·데이터·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남
- 내용
 - Ignite Sweden – Startup Matchday 2023에서 한국 SaaS·디지털 헬스 기업이 스웨덴 기업과 협업 논의를 개시하며 장기 파트너십 모색
 - Korea-Sweden Innovation Week 2024를 통해 한국 ICT 기업들이 스웨덴 대기업·기관과 매칭, 데이터·AI 솔루션 기반 PoC 논의 시작
 - Thales-Kista Science City “Trust My Tech” 프로그램(2025)은 스웨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지원을 본격화, 한국 기업에도 참여 기회 열림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스웨덴의 데이터·핀테크·E-헬스와 한국의 ICT 역량은 보완적 협력 가능성이 있으며, 6G·AI·디지털 헬스 분야 진입에는 PoC 단계에서 GDPR·EU AI Act 등 규제 적합성 충족 필요

나. 프로젝트

□ 유망 프로젝트

- 스웨덴은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정 기술, 제조업,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 녹색 산업 전환 및 에너지 부문
 - 그린 스틸
 - ▶ 전통적 철강 산업을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스틸(Green Steel)로 전환
 - ▶ H2 Green Steel(H2GS) 보덴(Boden) 공장, 2026년에 그린 스틸 공급 시작 목표
 -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95%까지 감축 목표
 - 재생에너지 및 수소
 - ▶ Nordic Hydrogen Route(NHR), 2026년 5월부터 외른셸스비크(Örnsköldsvik)에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시작
 - ▶ 녹색 수소 생산 및 운송 인프라 구축의 핵심 프로젝트
 - e-메탄올
 - ▶ 쉐드스발(Sundsvall)에 e-메탄올 생산 시설인 FlagshipTWO 건설
 - ▶ 2026년 5월 착공 예정으로 선박용 친환경 연료 생산 목표,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원전
 - 2035년까지 최소 2기, 2045년까지 총 10기의 대형 원자로에 해당하는 전력 생산 규모로 신규 원전 도입 추진
 - Vattenfall사(스웨덴 국영 전력 업체로 원전 운영), 2035년까지 링할스(Ringhals) 원자력발전소 부근 베레할브왜(Väröhalvö)지역에 대형 원자로 2기에 맞먹는 출력을 갖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 스웨덴에서 40년 만에 처음 건설하게 될 원자력발전소는 대형 원자로가 아닌 SMR테크닉으로 결정('25년 8월)-최종 협상자 선정을 놓고 우선협상대상자인 Rols-Royce와 GE Hitachi사가 치열한 경쟁 중
- 풍력발전
 - 풍력발전은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EU의 기후 목표 달성에 있어 중추적 역할 기대
 -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풍력발전은 100% 민간 주도 시장
 - 2024년까지 해상풍력발전 건설에 1,170억 크로나(약 106억 달러) 투자
 - 현재 42개 지역(북부 보스니아만 지역 12곳, 발트해 부근 25개 지역, 서해안 5개 지역)에서 해상풍력 발전 네트워크 연결 사업 신청, 총 125GW 발전 규모
- 'Switch to Sweden' 프로젝트
 - 6G 기술 개발을 포함해 디지털 기술, 데이터 분석, 로봇 공학 분야의 숙련된 인력 확보 등 디지털화
- 교통 및 송전 인프라
 - 교통 인프라 :
 - 2026~2037년 장기 인프라 계획 기간 동안 도로 및 철도 네트워크 유지 보수 및 확장
 - Nyköping 복선화는 2026년 3월 공사 시작
 - 송전망 인프라 :
 - 2026~2028년 동안 1,000억 크로나(약 100억 달러) 투입, 신규 송전선 및 변전소 확충, 노후 장비 교체
 - 북부 재생에너지 전력(풍력·수력)을 남부 수요지로 이송하는 장거리 고압 송전망 강화
 - 도시 개발 및 건설
 - Norra Stäcksön 및 Södra Häggvik에 신도시 구역 개발 프로젝트 → 각각 40억(약 4억 달러), 25억 크로나(약 2.5억 달러) 투입, 2026년 5월과 6월 착공)
 - 예테보리(Gothenburg)에 30억 크로나(약 3억 달러)를 투입하여 연구, 의료, 교육 시설인 Sahlgrenska Life Hus 2, 3 착공('26년 2분기)
 - EcoDataCenter 건설(150MW 규모, 데이터 센터 캠퍼스 1단계 건설)

- AI·데이터 개혁(AI-Data Reform) 프로젝트

- 2026년 4억 7,900만 크로나(약 4,800만 달러), 2027~2030년에 매년 약 5억 크로나(약 5,000만 달러) 배정

▶ AI·데이터 개혁(AI-Data Reform) 프로젝트는 AI 워크숍, AI 팩토리, AI 샌드박스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스웨덴 복지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G2B, B2B 등

- 우리 기업의 현지 기업 투자, G2B, B2B 등 주요 협력 사례



성공/실패 사례

- (개요) 중부발전, 스웨덴 풍력발전단지 건설 참여
 -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확대를 위해 스웨덴이 대규모 육상풍력단지 건설 프로젝트 진행
- 내용 스타브로(Stavro) 풍력발전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중부발전 참여
 - 254MW급 육상 풍력발전단지 건설, 4.1MW급 풍력발전기 62기 설치
 - 총 투자 규모 3,600억 원(한화)
 - 중부발전 투자 비용은 200억 원(한화) 규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유럽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한국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 입증, 한-스웨덴 경제 협력의 모범 사례 구축



성공/실패 사례

- (개요) 스웨덴 정부는 '30년까지 교통 분야 화석연료 퇴출 계획으로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
- 내용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로 양국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및 부품장비 공급기회 확대
 - LG에너지솔루션, Volvo 승용차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
 - 동진세미켄, 제일엠앤에스 등 배터리 관련 우리 기업,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 Northvolt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산장비·소재·부품 공급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Northvolt가 '25년 3월 파산함에 따라 우리 협력 기업들은 어려운 상태
 - 노스볼트와의 협력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은 이미 납품한 장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신규 투자를 연기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음
 - 이는 유망한 해외 시장 진출 기회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재무 건전성 및 사업 계획의 현실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리스크 관리 절차가 필수적임을 보여줌
 - 특히 신행 스타트업과의 거래시에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마련 필요

다. 공급망(자원개발)

□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품목 정기 모니터링

- 공급망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비 및 이슈 발생 시 신속 대응
 - 스웨덴 공급망 정책·통상 이슈 제공
 - 품목 관련 스웨덴 정책·시장 동향, 현지 언론 등 특이 정보 제공
- 안정화 품목(프로틴 레진/HS Code 3914009000)
 - 프로틴 레진은 바이오의약품으로 단백질 및 항체의 특이적 특징을 이용해 고순도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한 필수 원재료
 - 레진은 바이오 폴리머 또는 화학합성 폴리머가 단단하게 얹힌 실타래처럼 만들어진 마이크로 크기의 작은 다공성 구체(bead)로서 원료 물질과 합성법에 따라 비드와 기공의 크기, 기공 분포에 따라 물리화학적 성질이 다양
 - 다양한 분자가 커플링 된 비드인 레진은 단백질 간 결합 특이성, 전하, 소수성, 단백질 크기 등의 기능성을 가지게 되며 대표적인 바이오의약품인 재조합 단백질-항체 치료제의 고순도 정제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 스웨덴은 '프로틴 레진'의 주요 공급국으로 유력 제조 업체로 Cytiva사가 있음.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
 - Cytiva사는 2020년 Danaher Corporation(미)사가 GE Healthcare Life Science사를 합병해 탄생한 업체로 미국에 본사를 두며, 현재 한국을 비롯 전 세계 41개국 진출
 - 스웨덴 옘살라와 우메오에 생산라인 소재
 - 프로틴 레진 수출 현황(Global Trade Atlas)
 - 2025(1~6월) 기준, 수출액 1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
 - 상위 수출국은 미국(28.4 %), 오스트리아(9.9 %), 덴마크(9.1 %)
 - 한국은 스웨덴 수출 7위(6.3%)로 수출 1,000만 달러, 총 수출 시장의 5.5% 차지
- 안정화 품목(선박용 고압 증발가스 압축기/ HS Code 8414809210)
 - 선박용 고압 증발가스 압축기는 LNG연료추진선박, LNG병커링선박 및 LNG운반선 등의 화물창 또는 연료탱크로부터 기화되는 BOG(Boil-off Gas)를 압축하여 엔진 및 발전기에 연료 공급하거나 또는 150~300bar로 액화하여 LNG를 탱크에 회수하는 기능을 하는 고압 무급유(Oil-less) 또는 급유 타입 BOG 압축기
 - 수출 현황(Global Trade Atlas)
 - 2025(1~6월) 기준, 수출액 4,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
 - 상위 수출국은 미국(16.0%), 노르웨이(13.3 %), 덴마크(6.7%) 순
 - 한국은 스웨덴 수출 7위국, 수출액 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59% 증가, 총 수출 시장의 4.9% 차지

- 안정화 품목(선박용 가스 소각기/ HS Code 8416202000)
 - 선박용 가스 소각기는 LNG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Natural BOG에 의해 화물창 압력이 증가될 때 BOG를 태워 화물창 압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장비. GG(Inert gas generator)와 복합된 GCU도 포함
 - 수출 현황(Global Trade Atlas)
 - 2025(1~6월) 기준, 수출액 2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9.6% 감소
 - 스웨덴 수출 상위국은 아르메니아, 호주, 방글라데시 순, 한국은 수출 50위로 총 수출 시장의 0.01% 미만 점유



Ⅲ.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52
2. 진출전략	54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NATO 가입) 지정학적 위기 급증으로 중립노선 포기하고 NATO 가입 '24년 3월 조인, 방위비를 GDP의 5%로 단계적 상향 예정
- (원자력발전 정책 전환) 탈원전 → 원자력발전 투자 기반 강화로 선회,
 - 2045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도입 추진
- (에너지정책 목표 변경) 100% 재생에너지 → 100% 무화석연료 에너지
- (EU CBAM 대응) CBAM 도입 관련 기업 지원책 마련 및 CBAM으로 발생한 탄소 비용 전가 방지 법안 추진



경제(Economic)

- (GDP) 2026년 경제성장률 2.2% 전망
-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2.0% 아래 유지(현행 2.0%)
- (환율) 기준금리 인하로 스웨덴 코로나화 소폭 강세
- (인플레이션) 고인플레 안정세, '25년 2.3%, '26년 1.9% 전망
- (소비)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으로 소비회복 지연, '26년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와 함께 민간 소비가 경기 견인 예상



사회문화(Social)

-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총인구의 21%('24 기준)
- 2014년에 초고령사회 진입(20%)
- (소비위축) 고물가, 고금리로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 소비 위축
- (가격민감도 증가) 경기 위축과 불확실성 지속으로 가격 민감도 증가 → PB 상품 수요 증가
- (ESG 중시 여전) 경기침체로 구매 패턴의 일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환경·윤리·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여전



기술(Technological)

- (규제강화)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로 보안, 데이터보호, 경쟁 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 강화
- (IT투자) 디지털화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보안 관련 설비 투자
- 증가, AI 애플리케이션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전문가 양성 노력
- (에너지 고효율) 히트펌프, 단열재, 태양광발전 패널 등
- (디지털 헬스) e-Health 정책을 통한 디지털 헬스 기술 발전을 통해 초고령 사회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융합 기술 개발
- (공장 자동화) 로봇,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장 자동화 기술 선도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스웨덴과 상호보완적 수출입 구조
- 한-EU FTA에 따른 무관세 이점
- 제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한국산 인지도 상승
- 그린 뉴딜/친환경 정책 실행으로 관련 수요 증가
- GVC 제조업 발달-소·부·장 협력 기회 다대
- 원전 건설, 전력망 현대화 기자재 부문 경쟁력 보유

약점(Weakness)



-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 필수 인증 취득 미비
- 우리 중소기업의 언어(영어) 장벽
-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확대로 직수출 비중 지속 감소
-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 증가

기회(Opportunity)



- 원전, 청정에너지, AI 등 디지털·그린 정책 확산에 따른 신규 수요 증가
- 한류 열풍 확산으로 수출 기회 확대(K-푸드·뷰티·Goods 인기 상승)
- 공급망 회복력 강화 위한 공급처 다변화 수요 증가 및 GVC 재편 기회 확대
- 에너지 안보 중요성 대두

위협(Threat)



- 스웨덴의 높은 EU 역내 교역 비중
- 작은 내수시장 규모
- 불확실성 상존으로 경기 회복 폭 미미
- 환경규제와 인증 등 비관세장벽 증가
- 미·중 경쟁 확대 및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 요인
- GDPR 시행-바이어 정보 발굴 및 접촉 난이도 가중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전기차, 無化石에너지(풍력, 원자력) 분야 제조업체에 장비 및 부품 공급 확대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 확산에 따른 기회 확대
- 한국산 기계/장비/부품 인지도 상승 활용



현지 글로벌 기업과
협력관계 구축 노력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현지 트렌드를 반영한 K-Goods로 시너지 효과 창출
- 가성비 높은 PB 제품으로 진출
- 웰빙 세대를 위한 프리미엄 제품 병행 진출
- 한류 중심으로 K-브랜딩 강화 및 K-상품 고급화 추진



프리미엄 제품과
PB 제품 병행 진출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현지 유통시장 진출 고도화(온오프라인 유통망 공략)
- 한류 비즈니스 접목
- 초기 소량 주문에도 적극적 대응



디지털을 활용한
유통시장 공략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소비자시장 경쟁 심화를 기회로 역이용
-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온라인 유통 확대
- 로컬 벤더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장기적 관점 접근



로컬 벤더를 활용한
유통시장 진출

2. 진출전략



전략 ①

그린 뉴딜-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배경

- 스웨덴,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목표
- 원자력,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강화
- 화석연료제로 철강 생산프로젝트(Hybrit 프로젝트) 진행-Posco 등 우리 기업과 협력 기회 확대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 우리 기업에 단순한 수출 시장을 넘어 스웨덴의 기술과 자본, 한국의 제조 및 IT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기회 제공

□ 현지 동향

- 스웨덴 에너지정책
 -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2030년 63% 감축, 2040년에는 75% 감축
 - 스웨덴 탄소중립사회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 러-우 사태로 에너지 위기가 커지면서 해상풍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 급증
- 화석연료제로 철강 생산 프로젝트 진행
 - 스웨덴 최대 철강업체 SSAB사, LKAB(철강업체), Vattenfall(국영전력사)사와 공동으로 Hydrogen Breakthrough Ironmaking Technology(Hybrit) 프로젝트 시작(2016)
 -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화석연료제로 방식으로 철강 생산 성공(파일럿 생산수준)했으며, 2026년 부터 양산 계획
 - * Hybrit 프로젝트는 스웨덴의 철강용 그린수소 프로젝트로 최종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하고 유연한 저장장치를 사용해 수소 생산 비용 절감
 - * 2021.10월 볼보트럭이 SSAB사의 화석연료제로 철강을 사용해 세계 최초의 적재 운송차량 생산했고, Alfa Laval사는 무화석 철강으로 열교환기 생산
 - Stegra(구 H2 Green Steel사), 화석연료제로 철강 부문 후발주자로 조인

•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투자규모	추진 주체	발주처	진행 단계	프로젝트 일정	한국 기업 기회
신규 원전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950억 달러(5,000MW 용량 원자로 1기당 약 95억 달러) • 정부금융지원 프레임워크 2,200억 크로나 (약 234억 달러) 	정부/ 민간	Vattenf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5년 2기, 2045년 까지 총 10기의 원자로 건설 • 첫 2기 건설을 위한 우선 협상대상 2개사 선정 완료 	'23~'45	원전건설 및 전력기자재
전력망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3억 달러 	정부	Svenska Kraftnät (스웨덴 전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전) '45년까지 8,000Km 신규 송전선과 변전소 200개 건설 목표로 440건의 프로젝트 추진 • (배전) 스마트그리드 전환, 노후설비 교체 등 	10개년 개발계획 ('2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전선/ 효성중공업 /HD현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참여 중 • 초고압케이블, 변압기 등
그린스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확보 자금 약 65억 유로 (약 75.6억 달러) • 최근 추가 자금 조달 추진 약 9.75억 유로 (약 11억 달러) 	정부/ 민간	Steg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AB, LKAB, Vattenfall의 Hybrit 프로젝트-'16 시작, '26년 양산 계획 • Stegra(구 H2 Green Steel) 후발주자로 그린스틸 생산에 참여 (수소환원제철 공법) 2030 생산 확대 (500만 톤/년) 	'2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 생산 및 전해조 설비 공급 • 소재 및 부품공급

□ 유망 품목

- 전력·원전기자재
 - 2035년까지 최소 2기, 2045년까지 총 10기의 대형 원자로에 해당하는 전력 생산 규모로 신규 원전 도입 추진
 - Vattenfall(바텐팔)사는 스웨덴 정부의 원자력발전법 개정으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 중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대형 원자로 모두 검토 중
 - 40년 만의 첫 원자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링할스(Ringhals) 원전 부근 Väröhalvö에 SMR 발전소 건설 예정
 - 향후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참여 및 원전·기자재 부문 양국 협력 기대
-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로 인한 고압 케이블, 초고압 변압기 수요 증가
 - 전력수요 증가로 스웨덴의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 진행

- 고압 케이블과 주변기기, 초고압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 수요 증가
- 풍력발전 기자재
 - 풍력발전 부문은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EU의 기후 목표 달성에 있어 중추적 역할
 - 우리나라는 풍력발전 분야 높은 기술력과 관련 장비 및 부품 우수성 보유
 - (한)중부발전, 스웨덴 스타브로(Stavro), 구바베리엣(Gubbaberget)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 진출전략

-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로 인한 고압케이블, 초고압변압기 수요 증가
 - 스웨덴 전력청, Vattenfall 등 기협력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확대 및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 풍력발전 기자재
 - 풍력발전협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기회 모색
-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장기적 안목으로 접근
 - 지속가능 전기차배터리 생산업체로 2030년까지 유럽 전기차 배터리시장 25% 점유를 목표로 했던 Northvolt가 '25년 3월 재정난으로 파산하면서 그동안 Northvolt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던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들 모두 어려운 상황
 - 그러나 '25년 8월 미 배터리 제조업체 Lyten사가 Northvolt를 인수하면서 공장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향후 협력관계 회생 기대
 -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 필요

전략 ②

온오프라인 유통망 활용, 프리미엄 K-소비재 마케팅 강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K-Beauty 등 프리미엄 K-소비재 인지도 상승
- 주요 기업,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원가 절감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전략 추진 중

□ 현지 동향

- 스웨덴 전자상거래 회복세
 - 코로나 특수로 한때 40%(2020) 이상 급증했던 스웨덴 전자상거래 시장은 러-우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마이너스 8%까지 하락하다 2023년부터 상승세로 전환
 - ▶ 2024년 성장 폭 5%, 시장 규모 약 138.4억 달러
 - ▶ 2025년에는 148.3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2030년 195.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 '20(40% ↑), '21(5% ↑), '22(8% ↓), '23(10% ↑), '24(5% ↑) (HUI '25년 9월 기준)
-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잘 갖춰진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지속 성장 전망
- 전자상거래 쇼핑은 모바일을 이용한 구매 형태가 중심으로 '24년 기준, 스마트폰이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의 59% 차지, 온라인 쇼핑 보급률은 77%로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2,270달러 수준
- 경기침체기를 지나오면서 보복 소비가 제한적으로 증가했으나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오픈라인 대비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선호 → 전자상거래 유통망을 활용한 프리미엄 K-소비재 마케팅 강화 노력

□ 유망 품목

- 꾸준한 한류 확산으로 K-Food, K-Beauty 등 K-소비재 인지도 지속 상승
 - K-pop에서 시작된 한류열풍이 음식, 화장품 등 소비재 전반의 경쟁력 확대에 확산

□ 진출전략

- K-Goods 현지 마케팅 강화
 - 한류 확산에 따른 K-Food, K-Beauty의 인지도 상승으로 K-소비재의 북유럽 시장 선점 기회 부상
 - 초기 시장 검증 및 리스크 관리
 - ▶ 제품/서비스의 현지 적합성, 가격, 포지셔닝 등을 북유럽 현지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자체 파일럿 수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 ▶ 소량 수출을 통해 물류, 통관, 현지 법규 등 초기 시행착오를 미리 경험하고 시스템화

- 프리미엄 포지셔닝 확립
 - ▶ 북유럽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준비
 - ▶ (소비재) 뷰티, 식품 등 모든 제품에 건강, 지속 가능성,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증 및 스토리텔링 자료 확보
 - ▶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표준화된 모델과 검증된 사업 시스템을 통해 현지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K-Culture 전파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 ▶ 건강한 메뉴, 비건 옵션,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 북유럽 소비재 트렌드에 맞는 서비스 모델 미리 설계
 - ▶ (유통 채널 탐색 및 협상 준비) 북유럽 주요 쇼핑몰, 프리미엄 유통 채널, 전문 매장 리스트업 및 각 채널의 요구사항 분석, 맞춤형 입점 제안서를 준비하고 협력 벤더와의 파트너십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
- PB(Private Brand) 제품 진출
 - 웰니스, 친환경, 아이디어 제품, 실용성으로 대변되던 스웨덴의 소비 트렌드가 초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가성비 높은 제품 수요 증가
 - * 가격이 구매 결정의 최우선 요소로 다시 부상하면서 생활 소비재의 경우 가성비 선호
 -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 증가로 유통업체들이 PB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
 - 유통업체들이 자체 브랜드를 내세워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유통 단계 축소 및 디자인 최소화로 합리적 가격 책정
-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지속
 - 기후변화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원료, 포장재, 유통 및 생산 방식 등 모든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
 - 판매, OEM 등 스웨덴 시장 진출 시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고민하며, 강점이 있다면 마케팅 포인트로 적극 활용
 - 기본 디자인과 품질에 가격경쟁력 구비 필요
- 주요 품목별 유망 전시회, 온라인 유통채널 적극 활용
 - 스웨덴이나 유럽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를 바이어 발굴, 자사 제품 시장성 파악,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
 - * 유럽 전시회 참가 기업의 30~50%가 유럽 이외 출신이므로 유럽과 제3국 진출 플랫폼으로 기능
 - K-패션 등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저가형 소비재는 온라인 유통망 입점
- 對스웨덴 식품 수출 시 주의 사항
 - 한국 식품의 스웨덴 수출 시, 스웨덴 및 EU 식품 안전 기준 준수
 - ▶ 스웨덴 식품청(Livsmedelsverket)이 요구하는 안전, 라벨링, 품질 기준 충족
 - ▶ 첫째, 제품 성분 목록 스웨덴어로 번역-소비자가 제품 내용과 알레르기 해당 여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EU 기준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및 오염물질에 대한 테스트 합격 EU 규정(EU)2023/915에 명시된 미코톡신, 금속, 식물 독소, 가공 오염 물질 등 다양한 오염물질 검사
- 비EU 국가에서 수입된 식품중 동물성이 아닌 대부분의 제품은 국경 검사가 필요 없지만, 살모넬라와 같은 특정 위험이 있는 제품은 보호 조치 대상

전략 ③

혁신 생태계 조성-ICT융합 등 스웨덴 차세대 성장시장 타킷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EU, 차세대 산업 육성·디지털 재편 본격화
- 스웨덴, 차세대 집중 육성 대상 산업을 선정하여 대규모 투자
- 스웨덴 주요 기업, 산업 재편에 따른 기술 고도화 전략 추진 중

□ 현지 동향

- 4차 산업혁명,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ICT 융합기술 부문에 집중투자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인더스트리 정책 진행
 -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Industri 4.0, 지속가능 생산, 제조업의 지식 향상, 테스트베드 스웨덴 등 4개 분야 선정해 정책적으로 지원
- 5G, 6G 연구 및 협력 활발
 - Ericsson사는 5G 분야 글로벌 선도 주자로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 활발
- (핀란드) Nokia사와 공동으로 Hexa-X 프로젝트* 진행
 - * 5G 네트워크를 6G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 2030년부터 6G 가능 전망
 - 글로벌 공통 표준의 API 개발
 - Ericsson,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는 API 개발을 위해 여러 통신사들과 합작회사 설립('24년 9월)
 - API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Ericsson 사가 이미 개발한 상태로, 지난 2022년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 Vonage사 인수 후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시도했으나 모바일 네트워크 내에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채산성 악화
→ AT&T, Vodafone, Elefonia, Orange, Deutsch Telecom, Verizon 등 글로벌 통신사들과 API 부문 합작회사 건설 협약
- AI 부문 연구개발
 - 스웨덴은 국가 차원의 전략과 대규모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
 - 2015년 WASP(Wallenberg AI, Autonomous Systems and Software Program) 시작
 - 2019년 스웨덴 국립 AI연구소 개소
 - AI 연구개발의 핵심에는 AI 스웨덴(AI Sweden), WASP(Wallenberg AI, Autonomous Systems and Software Program) 프로그램 등 2개의 국가 프로그램이 있음

- 주요 연구 분야 및 프로젝트로는 산업 및 자물 시스템, 지속 가능성 및 환경, 의료 및 공공부문, 자연어 처리 및 언어 모델 등

□ 유망 품목

- 스웨덴 성장시장의 기회 활용, 기존 단발성 부품 공급 위주에서 공동 R&D, 기술제휴 등 스웨덴 기업과의 협력관계 재정립
 - 스웨덴은 ICT 기술 선도 국가로 에릭슨 외에도 관련 유망 기업 다수 배출(Spotify, Skype, Mojang, AXIS, King), 글로벌 IT/텔레콤 기업들과 공동 기술개발 협력을 통한 진출

□ 진출전략

-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로 이상적인 협력 파트너
 - 스웨덴은 가치사슬 단계별 스마트한 아웃 소싱을 활용, 완제품 제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형 산업 구조
 - 가치사슬 쏠 단계를 다루는 한국의 산업 구조상 대기업 간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글로벌 기업 밸류체인 진입 통한 협력 범주 확대 가능성 다대
- 영업과 R&D팀의 복합 마케팅 추진, 철저한 품질관리와 레퍼런스 형성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전략이 관건
 - 글로벌 기업의 복합적 요청 사항에 대한 개발팀과 영업팀의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중요

전략 4 비관세 장벽 대응 방안 수립



전략 수립 배경

- 높은 비관세 장벽(각종 인증, 환경 규제 등) 상존-현지 파트너를 통한 정책 변화 모니터링 필요
- 친환경 제품, 친환경 생산 중시
-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은 스웨덴 기업과 공동연구 진출 유리

□ 현지 동향

- 높은 비관세 장벽 및 인증제도 강화(EU 공동)
 - 스웨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관세 장벽은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 현재 진행 중인 무역기술장벽은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등
 - 스웨덴에서 요구하는 대표 인증은 CE, REACH, CPNP, RoHS, e-Mark 등
- 반덤핑·반보조금
 -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 강화
 - EU 집행위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 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 발표(2020.6.7.)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 인수 건에 대해 인수 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 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 방안 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 판매 등 경쟁 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 매각, 투자 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 공공 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 조달이나 기금 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 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 불가

□ 유망 품목

- TBT(비관세장벽)
 - ①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 2017년 5월 24일, EU 집행위는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내 비스페놀A(이하 BPA)의 이행기준치(migration limit)를 기존의 0.1mg/l에서 0.04mg/l로 강화
 - 납(lead) 제한 기준 강화, 페놀(Phenol) 제한 기준 추가 등 장난감 성분에 대한 규제

②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 제한 강화

-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 채택
-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 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

③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 2019년 5월, EU 집행위는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를 2019년 11월 부로 역내 반입을 제한 또는 금지
- EU는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 강화
- 사용 금지 물질은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으로, 시장 반입은 2019년 11월 22일부로 금지했고, 역내 판매는 2020년 2월 22일부로 금지

□ 진출전략

- 현지 파트너를 통한 정책 변화 모니터링 필요
 - 유망 품목은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전자제품 등 공산품 전반



원전 및 전력기자재

- 선정사유**
- 스웨덴이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2045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건설 계획
- 경쟁동향**
- 스웨덴 전력공기업 Vattenfall사의 원전 우선협상자는 대형 원자로 부문에 Westinghouse(미)와 EDF(프)사, SMR 부문은 GE Hitachi(미)와 Rolls Royce(영)
 - 우리 기업으로는 현대건설이 대형 원자로 부문에서 Westinghouse와 협력하고 있고, 삼성C&T는 SMR 부문에서 GE Hitachi와 협력 중
 - 원전 수주 상황에 따라 현대건설이나 삼성C&T의 참여 및 전력 기자재 부문 우리 기업 참여 가능성 높음
- 진출방안**
- 관련 프로젝트 입찰 및 운영 시스템 구축 등 협력 가능 파트너사 발굴
 - 현지의 설비 및 건설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조달 참여방안 모색

화장품

- 선정사유**
- 한류 열풍, 젊은 층의 SNS 이용 증가 및 인플루언서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지속 상승
- 경쟁동향**
- 백화점과 약국, 화장품 전문점 및 슈퍼마켓에서 한국산 마스크팩 등 기초화장품과 메이크업 제품 취급 시작
 - 스킨케어와 색조화장품 등 대다수 화장품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구매 형성
 - 글로벌 브랜드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으로 수입 상위국은 프랑스/덴마크/미국/독일/벨기에 순
- 진출방안**
- EU 화장품규제(No.1223/2009) 준수 및 CPNP 등록 필수
 - 가격경쟁력 못지않게 친환경 제품이라는 예코 인증 필요, 오가닉 제품 시장 진출이 유리
 - 유망 쇼핑몰 내 판매 가판대 운영 등 기획상품전 참가
 - 스톡홀름무역관이 주최하는 행사 참가를 통해 시장 진출 시도

식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확산으로 K-food 인지도 급증 • 김치, 만두, 각종 소스류 등 한국 식품의 건강식 이미지 제고 • 인스타그램, SNS 등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불닭볶음면을 포함한 한국 라면 인기 급상승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 슈퍼마켓에서도 김치와 라면, 고추장, 바베큐 소스 판매 • 아시아 식품 전문 판매점의 경우, 만두, 떡볶이, 김밥을 비롯한 냉동식품, 알로에베라 음료 등 취급 상품 군을 계속해서 확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료품 수입 증가 일로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직수출 또는 독일 공장과 네덜란드 물류창고를 통한 공급 • 아시아 시장 이외 현지 대형 식품 유통체인을 통한 공급 노력 • 면류, 소스류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떡볶이, 김밥, 음료 등도 진출 유력 |

라면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스웨덴에서 저렴하지만 영양이 부족한 음식으로 인식되어 오던 즉석 라면이 최근 라멘 레스토랑과 고급 라멘 브랜드의 등장에 힘입어 인식의 변화로 판매 증가세 • 특히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라면 수요 크게 증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의 면류(라면 포함) 수입은 지속 증가 중이며, 매년 15% 내외 증가 • 한국 라면은 불닭볶음면의 인기와 더불어 큰 폭으로 성장 • 이외 일본, 중국, 타이 라면 등이 경쟁 중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라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식품청 및 EU가 정한 식품 안전기준 충족 의무 • 특히, EU 기준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및 오염물질에 대한 테스트 통과 필요(미코톡신, 금속, 식물 독소, 가공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 |

승용차용 타이어

- 선정사유**
 - 스웨덴의 자동차타이어 시장 규모는 유럽 2위로, 팬데믹 이후 꾸준히 증가세
- 경쟁동향**
 - 스웨덴 타이어 시장은 탄탄한 자동차 산업, 자가 차량 증가, 우수한 타이어 품질 및 유지 성능에 대한 선호로 OEM과 교체 시장에서 꾸준한 증가세
 - 북유럽 기후 특성상 겨울용 타이어 등 계절적 특수성에 따른 수요 역시 존재
- 진출방안**
 - 얼음이나 눈 덮인 시골 도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텐드형 타이어와 북유럽 기후 조건에 맞춰 설계된 겨울 시즌용 마찰 타이어 시장이 상존
 -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로 스텐드형 타이어보다는 마찰타이어 시장이 증가하는 추세
 -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 진출 노력 필요
 - A/S 가능한 현지 파트너 발굴 급선무

전기차 충전기

- 선정사유**
 - 전기차 증가로 전기차 충전기 수요 동반 성장
- 경쟁동향**
 - 경기침체와 친환경 차량 보너스 폐지로 크게 감소하던 전기차 수요가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세
 - 전기차 충전소 확충은 필수적
 - 현재 스웨덴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제도(Klimatklivet)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 확대 예상(스웨덴 자동차협회)
- 진출방안**
 - 품질 경쟁력이 우수한 유럽 제품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 제품이 경쟁 중
 -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 진출 노력 필요
 - A/S 가능한 현지 파트너 발굴 급선무

히트펌프

- 선정사유**
- 러-우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그린정책으로 탄소중립화 노력이 커지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펌프 수요 증가
- 경쟁동향**
- 스웨덴 생산업체로 NIBE, IVT, Thermia, ComportZone 등이 있었으나, NIBE를 제외한 기업들은 각각 독일과 네덜란드 회사에 매각돼 소유권 전환-그러나 연구개발과 생산은 스웨덴에 잔존
 - 경쟁사로 Bosch Thermotechnik, Stiebel Eltron Group, Hernweg 등이 있음(스웨덴 히트펌프 연합)
 -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시장이므로 OEM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도 유리
- 진출방안**
- 스웨덴의 혹독한 겨울 기후를 고려해 낮은 외부 온도에서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고효율 제품이 필수적
 - 유럽의 F-gas 규제에 따라 R32 등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 개발
 -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유통업체 및 설치업체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화된 마케팅 필요

AI 제품

- 선정사유**
- 스웨덴 기업의 AI 도입 가속화에 따른 시장 수요 기대
- 경쟁동향**
- 스웨덴 AI 시장은 정부 주도로 성장 중
 - 스웨덴 혁신청을 통해 AI, 6G 등 첨단 디지털 기술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 지원
 - 자율 시스템 및 로봇틱스, 대규모 언어 모델, 헬스케어 및 의료기술, 지속가능한 기술 등이 주요 경쟁 분야
- 진출방안**
- EU AI 법안(AI Act)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UI/UX 등 현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컬 파트너 발굴을 통한 시장 진출
 - 기기 특성에 따른 CE, CE MDR 등 EU 인증 사전 취득

협동 로봇

- 선정사유**
-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 자동화 추진
- 경쟁동향**
- 제조업체 대부분이 자동화 설비로 전환 중
 -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 부담으로 협동로봇 등 자동화 설비 도입 지연
- 진출방안**
- EU 인증 등 유럽 내 필수 인증 확보
 -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 개발
 - 현지 기업 문화를 이해하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로컬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출



영상 콘텐츠

- 선정사유**
- 콘텐츠 플랫폼 시장 확대
 - 온 디맨드 콘텐츠 수요 증가 및 K-팝 열풍으로 한국 영상 콘텐츠에 대한 관심 상승
 -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다수의 한국 콘텐츠들이 계속 흥행 중
 -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 인기로 K-팝뿐 아니라 K-푸드, K-굿즈로도 저변 확대
- 경쟁동향**
- 넷플릭스 이외 글로벌 유력 콘텐츠 제작업체인 HBO
 - Max, Media. Monks, Night work, Scarabee 등이 시장
 - 점유율 확대를 놓고 치열한 경쟁
- 진출방안**
- 많은 스웨덴인들이 넷플릭스보다 HBO Max 플랫폼을 더 선호하는 경향
 - 따라서 스웨덴 시장 진출 시 HBO Max 플랫폼 활용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

한식 프랜차이즈

- 선정사유**
- 한류 확산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
 - 새로운 외식 시장으로 부상
- 경쟁동향**
- 스톡홀름과 같은 대도시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1세대 한식당부터, 젊은 층을 겨냥한 현대적이고 모던한 한식당까지 다양한 형태의 한식당 존재
 -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메뉴 개발, 세련된 인테리어 등으로 경쟁력 강화 중
 - 최근 퓨전 한식도 부상세
- 진출방안**
- 단순히 전통 한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스웨덴 소비자의 식습관과 선호도를 고려한 현지화된 메뉴 개발 필요
 - 스웨덴 외식 시장의 트렌드 중 하나는 간편한 '즉석식품'과 '밀키트'의 성장이므로 최적화된 메뉴와 밀키트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효과적
 - 건강한 이미지 강조

전기차 서비스

- 선정사유**
 - 스웨덴 신차 판매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 60% 상회. 앞으로 전기차 A/S 수요 성장 전망
- 경쟁동향**
 - 전기차 시장 확대와 달리 A/S 시장은 아직 미미한 편
- 진출방안**
 - 현재 내연기관 차량 대상 서비스센터 및 전기차 유통
 - 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가 있으나, 전장 장치와 전기차 배터리를 서비스할 수 있는 수요 필요
 - 직접 진출보다는 스웨덴 내 로컬 서비스센터와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유리

물류

- 선정사유**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류 수요 크게 증가
- 경쟁동향**
 - 스웨덴에 진출한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대한항공 카고(항공), 현대상선(해운), LX 판토스(구 범한 판토스) 등 3개사
 - LX판토스와 유코카 캐리어스사는 스웨덴 물류 시장이 확대되면서 '17년과 '18년에 각각 진출
 - 글로벌 물류업체가 대부분
- 진출방안**
 - 스웨덴 남부와 중부 지방을 잇는 물류단지 진출 유력
 - 기존의 3PL 물류 서비스에 IT와 컨설팅 분야까지 통합하는 4PL(Forty Party Logistics)의 중요성 확산
 - 라이더, 카메라, 센서 등을 활용한 자율이동 로봇 활용도 증가 전망
 - 향후 인공지능, 물류 프로세스 자동화는 물류 분야 투자에 있어 핵심 요소로 작용 전망

스마트 재활용시스템(대체플라스틱 패키징)

- 선정사유**
 -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로 대체 산업 육성
- 경쟁동향**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재앙으로 대체 플라스틱 패키징 수요 확대
 - 펄프 기반 섬유의 3D 건조몰딩 방식으로 일반 포장재 대비 생분해가 10배 이상 빠른 패키징과 플라스틱 대신 나뭇조각을 이용해 만든 병뚜껑 등 대체품 시장 확대
 - 경쟁사는 Pulpac(스), Sulapac(핀) 등
- 진출방안**
 - 스웨덴의 친환경 기술 보유업체와 공동 협력 방안 강구

건설서비스

- 선정사유**
- 건설 분야 전문 인력 부족 심각
- 경쟁동향**
- 스톡홀름, 요테보리, 말뫼 등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난이 심각해 주택 건설과 인프라 구조 확대 필요
 - 그러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스웨덴 건설업계 애로
- 진출방안**
- 건설 현장 인력은 라트비아 등 인근 발틱 국에서 주로 들어오고 있으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
 - 전기 배선, 배관 등 전문 자격증 필요 부문 유력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스웨덴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 사업명	일시/장소
소비재	2026 K-Beauty 유통망 구축 사업	3~5월/스웨덴
소·부·장	Lyten 배터리 진출 지원 사업	9월/스웨덴
전력 기자재	2026 한-스 에너지전환 포럼	10월/스웨덴
전력 기자재	스웨덴 전력 기자재 조달 지원 사업	연중 상시/스웨덴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6 춘계 예산(안) 발표	4월	춘계 예산(안) 발표
2027년 예산(안) 국회 상정	8~9월	2027 예산(안)
Almedalsveckan 2026	6월 22~26일	스웨덴 정치 주간
NATO Summit 2026	7월	터키, 앙카라
스웨덴 총선	9월 13일	스웨덴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EU CBAM 본격 시행(재정의무 시작)	1월 1일	1월 1일부 정식 단계 (Definitive Phase)
EU 산림벌채 규정(EUDR), 중소기업자 적용 (중·대기업 2025.12.30.부터 적용)	6월 30일	6월 30일부 적용
EU CSDDD 국내법 이행 마감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7월 26일	7월 26일까지 국내법으로 전환
EU AI Act 주요 의무 전면 적용 (2024.8.1. 발효)	8월 2일	8월2일부로 AI 시스템 운영자 의무 적용

유망 전시회 캘린더

전시회명	일시(잠정)	장소
스웨덴 스톡홀름 디자인 박람회 (Formex)	1월 20~22일	
스웨덴 요테보리 자동차 박람회 2026 (Automässan 2026)	1월 14~17일	
스웨덴 스톡홀름 정원 박람회 (Nordiska Trädgårdar)	3월 26~29일	

전시회명	일시(잠정)	장소
스웨덴 요테보리 와인 박람회 (Göteborg Vin & Deli)	4월 20~21일	
스웨덴 요테보리 맥주&위스키 박람회 (En Öl & Whiskymässan)	4월 17~18일	
스웨덴 스톡홀름 주택·하우스 박람회 (Hem&Villamässan)	10월 9~11일	
스웨덴 스톡홀름 방산 박람회 (Totalförsvarsmässan 2026)	10월 20~22일	
스웨덴 연쇄핑 산업 박람회 (Elmia Subcontractor)	11월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수정	차장	스톡홀름무역관	+46-8-30 8090	sujeong.lee@kotra.or.kr

2026 스웨덴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11-9 (95320)